

第143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8月12日(金)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1面

(15時58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豫定보다 2時間이 지났읍니다. 그러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立法調查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查官 鄭仁孝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방금 報告에서 들으신 대로 當 委員會 委員인 趙富英委員과 趙淳昇委員이 辭任되고 金文元委員과 趙洪奎委員께서 새로 補任되셨읍니다.

그러면은 金文元委員과 趙洪奎委員님 간단히 일어서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元委員 金文元입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趙洪奎委員 光州直轄市 光山區出身 趙洪奎입니다.

여러가지 부탁드립니다.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6時1分)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을 上程하겠읍니다.

먼저 지난 2次 委員會에서 委員長과 幹事에게 委任하여 주신 委員會運營에 관한 幹事會議 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읍니다.

○辛卿植委員 委員長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지난번 結果를 말씀 드리기전에 議事日程에 대해서 議事進行發言을 좀 드리겠

읍니다. 議事進行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本委員會은 오늘 本 特委를 代表하고 계시는 文東煥委員長에 관련된 事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黨이 이미 文東煥 本 特委委員長에 대해 委員長職을 自進辭退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태도표명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報道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 만큼 文委員長이 어떠한 議決節次도 거치지 않고 더우기 外交的 慣例도 무시한 채 美國政府에 대하여 書翰을 전달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文委員長은 美國政府에 書翰을 전달한 사실이 問題化되자 문제의 書翰이 本 特委委員長 資格이 아닌 文委員長 個人的 名義로 된 것이기 때문에 責任이 없다는 式的 解明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本委員會은 文委員長에게 묻겠읍니다.

한 나라의 國會가 他國의 公職에 있었던 사람을 出席케 하여 그 公職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質問하고 證言하도록 當該 政府에 요청하는 일이 公的인 일입니까 私的인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이에 常識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이 없이 公的인 일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公的인 일일진대 그것을 요청하는 書翰의 名義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당한 外交節次에 따라 公式的으로 전달이 되고 回答을 받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그 公翰이 文委員長 주장대로 사실상 文委員長 個人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치더라도 엄연히 公的인 사실을 담고 있는 公翰을 個人의 이름으로 作成하여 보낸 文委員長의 처사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個人名義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責任을 면하려 한대서야 어찌 그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몇몇한 公人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우기 文委員長의 公翰은 文委員長 個人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 委員長名義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便紙紙도 大韓民國國會 書式일진대 그것이 어찌 個人의 이름으로 된 私信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文委員長은 또 문제의 公翰에 本 特委會를 대신하여 文委員長 자신이 本 特委會證言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公翰에는 분명히 "on behalf of the committee, I should like to request you to testify"로 적혀 있습니다.

美國에서 오래동안 살아오신 文委員長이 이 뜻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本 特委會가 그 두 사람을 證人으로 채택하였기에 文委員長은 스스로 委員會를 대신한다고 하였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文委員長은 두 사람이 本 特委會에 참석할 경우 여행경비 및 日當을 美國의 法院이나 議會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經費도 文委員長이 個人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文委員長의 이러한 行爲가 國會議事에 정통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인지 또는 本 特委會 委員長이기에 앞서 黨의 입장을 重視해야 하는 사정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他國 政府와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外交的 慣例나 節次를 완전히 무시 또는 자의적인 目的達成을 위한 것이라는 非難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록 文委員長의 이러한 行爲가 外交에 대한 無知 또는 순수한 의도에서 빚어진 것이

라 하더라도 앞으로 歷史的 政治的으로 막중한 責任을 감당해 나가야 할 本 特委會의 所任을 감당할 때 이처럼 缺格事由를 안고 있는 文委員長에게 本 特委會의 運營을 우리는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文委員長은 이미 本 特委會를 열기도 전에 新聞「인터뷰」 등을 통해서 光州事態에 대해 義舉니 軍靴에 짓밟힌 事態니 하면서 先入觀과 偏見에 가득 찬 發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7月25日 열린 本 特委會 全體會議에서 文委員長은 이러한 偏見에서 벗어나 嚴正中立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일차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튿날 7月26日 문제의 公翰을 美 國務省 「더윈스키」次官에게 전달하였다가 그것을 한시간만에 返戻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文東煥委員長께서는 애당초 國會의 議決節次도 거치지 않은 채 두 美國人을 本 特委會의 證人으로 採擇함으로써 國會法 第122條 規定을 違反하였고 정당하고 적법한 慣例나 節次를 따르지 않은 채 이 두 證人의 本 特委會 出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協調를 要請하는 公翰을 他國 政府에 전달하여 우리 國會는 물론 大韓民國政府의 威信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國會法 第122條에 보면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第2項에는 「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議長을 敬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證人 등의 出席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것도 法으로 정한 節次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文委員長이 이를 전면 무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文委員長의 이러한 行爲는 엄연히 實定法違反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할 줄 압니다. 그러나 文委員長께서 먼저 本 特委會 委員長을 스스로 辭退하여 公人으로서의 실수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나마 國會의 실추된 名譽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文委員長은 당초 12日 오늘 周永福

李煥性 金大中 鄭東年씨 등에 관한 證言을 듣기로 하고 證言要求書까지 이미 發送했던 것을…… 지금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人採擇을 문제삼아 가지고 會議이 이제까지 遲延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文委員長께서는 이와 같은 처사를 감안할 때 냉정한 理性을 갖고 公平無私하게 真相에 접근하여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할 本 特委의 運營責任을 결코 맡길 수 없음을 本委員은 거듭 강조하면서 文委員長의 委員長職 辭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會議의 議事日程에 직접 結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議事進行發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전번 會議때 이 문제가 提起되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答辯해 드린 줄로 아는데 아직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特委가 「글라이스틴」이나 「위کم」을 證人으로 要請하는 公翰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公翰은 政府로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特委 委員長으로 그러나 私翰으로 그들에게 여기에 參席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미리 알음으로써 우리 委員會가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참고로 삼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草案하신 崔先生도 사실 印度大使등 여러 大使를 거친 분이어서 이런 公翰이 어떻게 傳達되어야 하는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國會가 끝나자마자 趙淳昇委員이 급히 美國으로 가기에 그 기회를 통해서 「위کم」과 「글라이스틴」이 올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로이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I should like to request」란 말 자체가 英語로서 그렇습니다. 英語를 여기서 문제삼는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委員會의 公翰으로 外交的인 用語를 쓴다면 「We cordially request」 이렇게 씁니다. 「I should like to」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돌려 얘기하는 것입니다. 「on behalf of」하는 것은 이 委員會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응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出席하라는 要請이 아닌 것은 出席하라는 要請이라면 그냥 出席

하라고 할 것이지 아닌 경우에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겠고 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보는 것도 역시 그쪽의 형편과 여러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 平民黨의 사사로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美國과 韓國外交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려서 여러가지 韓·美關係에 物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서 사실 얼마전 우리 李敏燮幹事님하고 朝鮮日報「인터뷰」할 때도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풀려져야 되겠다 했더니 李敏燮委員이 그래야지 이번에는 꼭 어떻게든지 그 분들을 불러서 이것이 풀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과 美國사이에 흐려버린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趙淳昇委員이 남히 떠나기에 가서 打診해 봐라 해서 사실 美議會에 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게 사사로이 전해서 그 분들의 意思를 물어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趙淳昇委員이 스스로 그 분들을 찾아 만나기에 꼭 불편했던지 여러가지 便宜上 議會에 부탁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美國議會는 그것을 마치 우리의 公翰인 것으로 착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名譽를 실추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그들의 意思를 打診한 것이 우리의 뜻인데 이렇게 間接的으로 意思가 打診되어 그 분들이 그들의 意思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목적했던 것을 달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委員會가 원만하게 運營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 사사로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응할 수 있느냐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을 打診해 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辛卿樞委員 잠깐만 다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 소신

을.....

○辛基夏委員 議事進行發言은 없습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委員長이 한번만 다시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辛卿植委員 委員長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趙委員이 가시는 편에 本人에게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趙委員이 시간이 없어서 國務省에 갔다 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便紙보내신 寫本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國務省으로 보내게 C.O Department of State 로 돼있고 또 이 外交에 있어서는 形式도 중요한데 뒤에 우리 光州特委委員長으로 해가지고 署名을 했고 用紙도 國會用紙를 썼고 私信이란 말이 단 한마디라도 비켰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텐데 그런 게 없고 분명히 國務省을 통해서 전달하도록끔 앞에 써 있는데 本人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저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그 두 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 特委委員長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물을 까닭도 없어요 그러니까 特委委員長으로서 물은 것이지요. 그리고 두 분들의 의사를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사실 「글라이스틴」이나 「위킵」을 언제 우리 委員會에서 幹事會議에서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날짜를 定하고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결국 부르게 될 것들을 생각해서 미리 打診해 본 것입니다. 그 밖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와서 왜 「퍼스널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鄭東星委員 議事進行發言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議事進行發言 이 案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드리고 그 다음에 李敏燮 幹事 말씀하시면...

○鄭東星委員 鄭東星委員입니다.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議事進行을 하는 동안

議事를 원활히 進行하기 위해서 누구나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절대 委員長이 強壓的으로 議事進行을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正式으로 議事進行을 위해서 發言 하겠습니다.

지금 委員長께서 韓美關係 理解增進關係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特委는 韓美 理解增進關係로 特委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國會는 慣例가 있고 歷史와 傳統이 있는 것입니다. 大韓民國 國會에서 證人에 관련된 그런 節次를 밟는 것은 國會法 第122案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을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이 條項이 분명히 規定돼 있고 第2項에는 委員會가 이와 같은 要求를 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 定하지 않는 한 議長을 經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文委員長께서는 大韓民國 國會議員으로서의 特別委員長입니다. 本委員會의 앞으로 調査活動을 위해서 國會에 準하는 모든 規定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렇게 對外 海外에 書翰 公翰을 보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이 지적되지 않는 것입니다.

文委員長께서 보낸 書翰內容이 아까 英語로 말씀하셨습니까마는 I should like라고 하는데 상당히 강한 한 個人的 意志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文委員長 公翰 그 내용을 보면 個人 운운하나 그 名義가 5·18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名義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美國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美國 關係者는 이 書翰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公翰 公式的인 書翰으로 評價하는 것이지 個人的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묻는 것으로 評價하지 않는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또 文委員長은 문제의 公翰에 本 特委를 대신하여 文委員長 자신이 本 特委에 證言을 要請한다. 아주 앞뒤가 이해하기 어려운 表現도 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國會法 第122條에 違反되는 그러한 證人關係 要請을 했기 때문에 사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委員長 辭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辭

退가 이루어지지 않는 限 會議 議事進行 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그 根本的인 國會法이 違反된 상태에서 무엇을 調査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한가지만 答辯하고 말씀해 주세요.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입니다. 이 真相이 美國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다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의 公式的인 要請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제 答辯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幹事會議에서 문제를 提起했던 當事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幹事會議에서 이러한 문제가 發生된데 대해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文東煥委員長님께 우리 黨의 뜻과 또 이 문제의 성격을 말씀드렸읍니다. 왜 우리가 會議 冒頭에 이 문제를 議事進行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光州真相調查特委는 매우 國民의 관심이 많고 또 政治的인 입장이 매우 민감한 그러한 特別委員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委員會만큼은 國民들한테 떳떳하고 또 공정하게 운영됨으로써 유리알같이 國民이 들 여다볼 수 있는 그런 委員會로써 인정을 받게 하자는 것이 기본자세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個人的으로는 미안합니다마는 野黨 일부 委員님들에 대한 문제도 提起를 했고 또 이 문제를 저희가 처음 提起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두차례에 걸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提起를 했읍니다. 그래서 委員長님께서 그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公평하게 우리 委員會를 이끌어 나가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저희는 기대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表明이 있는 直後에 이러한 文件이 우리 與野 幹事會議에서 한마디 사전에 舉論조차 된 바가 없고 4黨이 證人申請書를 우리 幹事會議에 내게 됐는데 거기에도 전혀 이 美國人들이 證人申請對象에 포함이 안 됐었읍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로

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산적한 많은 이 光州真相特委를 과연 원만하게 公정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 核心을 파헤치는 것 이상의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이를 會議 冒頭에 다루게 된 것을 여러 委員님들 한테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海명하는 문제를 떠나서 또 이러한 문제가 提起되는 그 이상 앞으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具體的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美 國務省이라는 것은 우리 政府의 文書와 즉 對話를 연결시키는 公式 窓口입니다.

여기에서 내셨다는 것이 私信이라는 것으로서는 說得力이 약하고 또 이것이 한時間만에 文書가 返戻되었다는 것은 거기서도 이것을 私信의 性格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公文의 性格으로도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返戻한 것이고 또 그 內容에 보면 우리가 旅費支給을 한다든가 이러한 具體的인 事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文案內容으로만 보면 大韓民國國會의 豫算으로 그 證人들의 旅費를 支拂하겠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것이 私信이다 公式書翰이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미 이 문제 自體에 대해서 문제를 더 提起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주신 文委員長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로서는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提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委員長께서 이것이 솔직이 우리가 經驗未熟으로 또는 時限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動機야 어떤든 간에 結果的으로 이것이 國際的으로 화제가 되고 또 國內에서 민감한 문제로 政治的인 문제로 提起된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한마디 사과라도 있고서 말씀이 있었다면 저희가 또 이것을 접근하는 여러가지 자세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가 있을 줄로 압

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提起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相對方쪽에서... 當事者이시기 때문에 얘기가 저기하시면 相對方에서라도 얘기하시는 것 막지 않습니다. 議事進行發言이라는 것은 때로는 議事를 방해하는 結果도 납니다. 왜냐하면 議事가 공정하게 進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方向으로 틀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議事進行을 故意的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冒頭에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거르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로서는 立場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가 幹事會議에서 이것을 正式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委員長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立場을 제가 말씀을 못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文案에 대한 解明만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우리 文委員長님의 立場 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議論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理由로 인해서 문제를提起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서 다른 議題로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委員長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시 停會를 해서 4黨幹事들 間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매듭을 짓고 우리가 會議을 할 것인가 또 解決이 안되면 이것은 本質接近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잠시 論議하는 그러한 停會를 해 줄 것을 要請을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것같은데 이 便紙 쓴 것이 요전에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 뒤에 便紙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첫째로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委

員長 한 個人으로서 이 委員會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경우에 물론 여러가지 便宜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常識的인 얘기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오해할 여지없이 便紙 쓰고 行動했었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順序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李敏燮委員 委員長님! 委員長님! 우리가 저 個人의 停會要請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與黨 全體의 停會要請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進行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李敏燮委員 아니 그렇게 運營하지 마세요. 그렇게 運營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委員長 文東煥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죠.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죠. 그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李敏燮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10분이라도 時間을 定해서 이 문제를... 우리 與黨 全體意思 아닙니까?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가만히 계세요. 幹事님들 여기 나오세요.

(場內騷亂)

여기 幹事님들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이것 停會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幹事님들 얘기를 듣고 決定하겠습니다. 저 혼자 決定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동안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36分 會議中止)

(16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이 문제를 저희黨에서提起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듭을 짓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委員長님께서 謝過性的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우리의 4黨 幹事間에 전혀 논의가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 停會중에 우리 4黨 幹事에게 사전에 一言 協議가 없이 언급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그 의도야 어디 제시문간에 상당히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의 말씀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 會議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확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4黨 幹事들은 이 會議의 원만한 運營을 위해서 委員長님께서 분명히 公式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再發防止 保障을 위해 확약을 해주시고 다시 會議를 續開하는 것으로 이렇게 幹事間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아까도 얘기한 가운데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과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명확히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私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私信이 아니라 特委의 委員長이라고 하는 제 신분을 밝히는 이름하에서 私信을 쓴 것입니다. 私信을 쓴 것이기 때문에 國會議長을 통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特委에 관계된 것이었기에 私信일망정 우리 같이 일하는 幹事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관계로서 내가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급한 관계로 얘기하지 못하고 또 그 후에도 사실 머리가 미처 돌아가지 못해서 事後에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고 계속해서 그 외 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협의해서 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양해하시고 오늘의 日程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2次會議에서 委員長과 幹事에게 委任하여 주신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幹事會議 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吳景義委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統一民主黨의 吳景義委員입니다.

幹事會議 結果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年7月25日 第2次 委員會에서 委員長과 幹事에게 委任하여 주신 委員會運營에 관한 幹事會議 結果를 간단히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4個 交涉團體 幹事들은 委員長이 出席한 가운데 7月27日 8月3日 8月8日 8月11日 네 차례에 걸쳐서 委員會運營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證人採擇에 있어서는 1次로 周永福씨 李煥性씨 金大中씨 鄭東年씨 네 분을 8月12日 證人으로서 출석시켜 證言을 청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요구한 資料 등의 미비로 8月18日로 연기하였으며 추가로 金相賢씨 鄭基用씨를 證人으로서 채택하였습니다.

第2次 證人採擇 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였으나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新民主共和黨 幹事는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人採擇을 적극 주장한 반면에 民主正義黨 幹事는 特委 調查活動을 더 진전시켜 보고 崔 前大統領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여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資料要求는 段階別로 證言聽取에 필요한 資料를 各 幹事が 취합하여 關係部處에 요구하여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이미 제출된 資料는 各 委員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資料가 불성실하다고 지적되어 오늘 委員會에서 政府側에 성실한 資料提出을 촉구하는 決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資料要求에 대한 現況을 具體적으로 말씀드리면 1次 資料要求件數는 總 25件으로서 國防部所管 13件 總務處所管 7件 國家安全企劃部所管 4件 大統領秘書室 1件을 88年8月1日 要求하여 8月4日 까지 提出하도록 하였습니다. 國防部所管의 13件中 8月10日 9件이 提出되었고 3件은 物量過多로 8月16日까지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1件은 總務處로 하여금 8月18日까지 提出토록 요구하였습니다.

總務處所管의 7件에 대해서는 8月6日 4件만 제출되고 나머지 3件은 8月10日 제출되었습니다.

國家安全企劃部所管의 4件에 대해서는 國防部所管으로 확인되어 8月8日 國防부에 다시 요구하여 8月16日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大

統領秘書室所管의 1件에 대하여는 記錄不在로 未提出되었다는 電話通知가 있었습니다.

全般的으로 資料提出이 요구한 時日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어 8月18日에 證言聽取가 政府 資料에 대한 事前檢討의 時間 여유를 거의 못 가진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 그나마 提出된 資料들도 그 내용이 불성실하여 資料로서의 가치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2次 資料提出要求는 總 65件으로서 大統領 秘書室所管 3件 國務總理室所管 3件 國防部所管 51件 外務部所管 1件 國會事務處所管 2件 內務部所管 5件을 88年8月10日 요구하여 8月17日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證人審問方法은 委員長이 關係法規上의 處罰規程 및 保護規程 등을 주지시키고 宣誓를 시킨 다음에 各 交涉團體를 代表하는 委員이 첫 審問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委員이 審問을 하되 委員長은 各 交涉團體 委員數의 比率를 감안하여 公평하게 審問機會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次 證人에 대한 첫 審問은 周永福씨에 대해서는 民主正義黨 李煥性씨에 대해서는 新民主共和黨 金大中씨에 대해서는 平和民主黨 鄭東年씨에 대해서는 統一民主黨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幹事會議 協議事項을 報告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방금 幹事會議 結果報告를 들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중에 우리가 檢討해야 할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崔圭夏 前大統領出席與否에 관한 決定이고 둘째 資料要請에 대해서 政府當局에 좀 더 성실한 資料提出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案件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月18日 聽取하는 문제 그것은 사실은 네사람의 것을 聽取하기로 되어 있

는데 시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되어야 할 案件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李敏燮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李敏燮委員입니다. 오늘 會議 議事日程은 우리가 報告와 또 우선 當장 접하고 있는 18日 첫 證言聽取의 문제가 이제 당면 가장 시급한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野黨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證人出席問題 이것을 다루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우선 제가 이것은 委員長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는데 우선 18日 日程決定이 된 네 분의 證言聽取 日程에 차질이 없는지 그 해당 各 交涉團體에 예를 들어서 交涉團體는 그 證人을 이렇게 申請해 주신 쪽에다가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차질이 없는지의 與否를 또 차질이 있으면은 왜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저희가 그날의 日程이 제대로 運營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論議를 하는 것이 順序일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아 예.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平民黨 李海瓚委員입니다.

그동안 幹事會議를 통해서 證言者選定 證言 날짜 決定에 관한 論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8日 證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證言聽取는 8月12日하고 17日 듣기로 幹事會議에서 完全合意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月8日 현재 앞서 民主黨의 吳景義委員에서 報告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國防部側의 資料가 거의 提出되지 않아 있었고 특히나 8日 幹事會議席上에서 國防部에서 資料를 가지고 出發했다라고 하는 報告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月10日까지도 資料가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8月9日에는 國防部 資料提出擔當官이 與 野幹事를 만나서 資料提出을 保留해도 좋다는 合意가 있었기 때문에 資料提出을 늦추고 있다는 答辯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與野幹事하고 만난 사실도 없고 그

런 것을 論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資料가 전혀 거의 本 特委에 提出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2일에 예정됐던 그 證言聽取가 불가피하게 18일로 延長 順延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대로 12日和 17일에 證言聽取를 하게 되면은 원래 平和民主黨의 金大中總裁께서 12日 午後에 證言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訪問을 19日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側의 資料提出未備로 인해서 부득이 18일로 延長을 하는데 또 4黨幹事가 완전히 合意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結果적으로 19日 金總裁의 「필리핀」訪問이 18일에 이어서 곧 바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18日 證言聽取가 예정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그럴 展望입니다.

金總裁가 18日 「필리핀」을 訪問을 해서 24日 돌아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日 午前에 選定되어 있는 周永福 證人和 李煥性證人에 대해서는 證言聽取를 예정대로 하고 이어서 午後로 예정되어 있던 金大中證人和 鄭東年證人에 대한 證言聽取는 본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特委를 18日 하는 줄 알고 19日 「필리핀」을 訪問하는 것이 아니고 12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18일로 延期하는 本 特委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訪問했다가 歸國하신 후에 빠른 時日내에 證言聽取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난 幹事會議에서 論議를 했었습니다. 완전히 合意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大體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證言聽取를 해 나갈 것을 提案합니다.

○李敏燮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예.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두 幹事만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고.....

○李敏燮委員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獨占하는 것같아서.....

먼저 李海瓚 平民黨幹事が 소상히 報告를 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되시겠습니까마는 거기에 관해서 저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

씀을 드러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幹事會議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長時間 論難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8日 우리가 歷史적인 첫 證言인 만큼 이것이 차질없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與黨의 견해였고 또 平民黨은 그렇다면은 野圈에서는 金總裁의 돌연한 「스케주울」로 인해서 이것이 27일부터 29日사이에 證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맞서서 合意를 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8日 첫번째 날에 證言日程이 有效하고 이것은 이미 證人들한테 出席要求書가 나가서 法的으로 效力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어제 11時30分 基督教放送인가 거기에 우리 李海瓚委員 平民黨幹事の 얘기로 29日 金總裁의 證言聽取를 하기로 이렇게 合意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찌까지 저희가 幹事會議가 끝난 뒤에 네분의 幹事들이 國會記者室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雙方간에 의견이 있어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분명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海瓚幹事께서 얘기한 우리 幹事會議의 協議過程을 보면 지난번에 원래 우리가 12日 첫번째 證人選定을 할 때 매우 신중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앞으로 委員會를 어떠한 방법으로 調查活動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直結되기 때문에 첫번째의 證人選定만큼은 全體 調查活動의 構圖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4黨간에 深思熟考를 해서 여러 사람의 證人對象도 學論이 됐고 했습니다마는 네사람의 1次 證言者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8日 幹事會議에서 12日 證人이 선정이 되었는데 8日 幹事會議가 아닙니다. 그 전에 3日 幹事會議에서 12日 證人이 選定되었는데 8日 幹事會議에서 이것이 도저히 資料提出..... 지금 속도가 늦고 그 당시 8日 午後까지 國防部가 資料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날 年前에 幹事會議가 열려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實質적으로 資料가 다 온다하더라도 이것을 검토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일로

예정됐던 1次證言을 18日로 연기하자는 제의를 文東煥委員長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平民黨 또 他黨의 幹事들이 그러면 18日 첫번 證言을 듣기로 하자 하는데 반해서 저는 우리가 이 證言을 聽取하는 것이 꼭 資料를 토대로 하는 것만 아니라 證言聽取 자체도 일종의 資料다 그러니까 12日 예정대로 이 會議을 하면서 證言을 듣고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資料가 있고 또 質問內容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17日로 會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7日 미진한 것을 다시 묻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12日 이 會議를 일단 하고 17日이든 18日이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맞았습니다마는 역시 요즘 與小野大國會가 되어서 그런지 3野黨에서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우리도 원만한 또 會議運營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저는 17日로 2次會議가 예정됐었기 때문에 17日로 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18日이 좋겠다 資料審査를 넉넉히 하려면 18日로 하자 해서 그렇게 會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金大中總裁께서 外國 나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렴풋이 中旬쯤에서 어디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野黨測에서 이 會議를 연기할때야 證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8日로 合意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11日 幹事會議에서 平民黨側에서 처음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金大中總裁가 이렇게 떠나시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전혀 몰랐다 그래서 19日 떠나시는 데 도저히 18日…… 우리 원래 證言은 18日 19日 이렇게 또 부족하면 20日 해서 이 삼일씩 여유있게 듣기로 合意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처음에 우리가 證人選定을 할때 앞으로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事態의 勃發서 부터 時差的으로 꼭 時間上으로 잘라 가면서 調查活動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效率的이겠다

이렇게 合意가 되어서 事態勃發 부분에 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 周永福 李燦性 씨 또 金大中 鄭東年 證人 이렇게 저희가 신중히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真相調查를 해 들어 가는데 있어서 基本構圖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證人的 構圖가 만약 순서가 뒤바뀌면 앞으로 調查活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혼선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人이 시급하다 해서 오늘날 懸案問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누구의 證言은 아무 때이고 1週日이고 열흘 늦어져도 真相調查活動에 지장이 없고 누구의 證言은 꼭 반드시 初期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論理的인 根柢를 뒤바꿔놓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本人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調查活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證人이나 자기의 個人的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첫날이든 둘째날이든 앞으로 꼭 證人을 선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정이 있다고 안 나올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어느 개인 하나하나를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調查活動進展에 따른 構圖로서 證人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져야만 앞으로 해 나가는 調查活動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18日 1次 證言의 構圖는 光州 真相調查活動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黨으로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고 또 온 國民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光州市民이 또한 매우 애타게 기다리는 이 문제 이상 중요한 과제가 우리 國內 政治狀況에 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어떠한 단판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철하지 않으면 앞으로 特委活動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을 해서 委員長께서는 各黨 交涉團體간의 交涉을 통해서 우리 1次 證言의 構圖가 변하지 않고 예정대로 18日부터 1次

證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勸議를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여기대로 하는 것은 勸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 말씀하세요.

○金仁坤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仁坤입니다.

李敏燮委員께서 말씀하신 金大中씨의 證言날짜라든가 採擇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形式的으로는 이것을 놓고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平民黨의 總裁이기 때문에 우리가 證人으로 採擇한 것은 아니거든요. 自然人 金大中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證人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採擇해서 어느날 당신을 證人으로 採擇했으니 나와주십사 하는 公文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金大中씨 自然人으로부터서는 하등의 書信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19日 떠나려는지 안그러면 변경해 가지고 안가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 분이 사정에 의해서 19日 떠나지 않으면 안 될 형편같으면 具備書類를 갖추어서 여기다 아마 제출을 할 것입니다. 法이 그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黨 일각에 봉직하고 계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19日 떠나는지 20日 떠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 自然人 金大中씨한테서는 아무런 書信도 받지 않았어요.

書信 왔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事務處에서 처음에 一次的으로서는 당신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라고 날짜와 시간을.....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證人採擇과 동시에 證言날짜를 통고한 것뿐이고 그 분한테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書信이 왔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안 왔습니다. 아직.....

○金仁坤委員 안 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대상이 안된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가 물론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있다 그러니 예정대로 證人으로서 나와서 證言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분한테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겠다는가 안나온다든가 나온다든가 하는 얘기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직은 못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첫 證言을 들을 날을 18日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안 나온다면 法에 의해서 處罰을 하는 것이고 나오면 듣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本人한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形式的이고 要式行爲를 가지고 國會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意見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敏燮委員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지금 金仁坤幹事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된 國監調法에 의하면 정당한 事由가 있을 때에 本人이 그것을 出席하지 않고 연장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施行令이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어떠한 方法으로 며칠까지 出席을 못하겠다는 要求를 하라는 근거규정이 施行令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하든 또는 5日前에 하든 현재로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委員長께 冒頭에 各黨交涉團體 내지는 證言對象者에 대해서 분명히 證人出席要求書가 가고 과연 우리 該當委員會에서 확인한 결과 4사람의 證人이다 나올 수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오늘 議事日程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黨 證人의 證言을 計劃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하면 우리는 調查活動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幹事會議에서... 幹事라고

하는 것은 그 黨을 代表하기 때문에 분명히 李海瓚幹事가 19日 金大中總裁가 떠나시기 때문에 18日 19日 證言이 곤란하다는 표명이 있었고 그래도 부족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委員長한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新聞에도 벌써 金總裁가 外國에 떠나신다는 것이 公表되어서 公開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金大中總裁를 위해서도 公黨의 總裁로서 우리 特委의 첫번째 證人으로 채택되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표명도 없다가 그 날 갑자기 훌쩍 떠날 때에 거기에서 오는 國民에 대한 실망감과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볼 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18日 證人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本質的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앞에서 議事進行發言이 있었고 또 이 문제도 그렇게 本質的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會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光州特委 第2次會議는 원래 2時로 예정을 했었는데 民主黨의 自體事情으로 해서 4時에 시작이 되었고 1時間이 경과한 현재까지 會議의 큰 성과가 없이 非本質的인 것을 가지고 時間이 遷延이 되고 있습니다.

新聞에도 여러번 언급이 되고 난 바와같이 오늘 이 特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國民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日 證言聽取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日 證言聽取를 18日로 연기하자고 提案하신 분은 李敏燮幹事였습니다. 저희도 資料의 미비로 인해서 지연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18日로 연기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李敏燮幹事이셨습니다. 그래서 18일에 동의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8日로 연기를 하고 18일에 證言聽取를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特委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本 特委의 지연으로 인해서 證人으로 나올 분의 일정과 공교롭게 중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이기 때문에 本 特委에서 그 證人의 證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서는 本 特委의 證言은 證人이 出席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國會가 가지고 있는 法的인 權限을 사용하는 것인데 本人이 證言者가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언제 證言을 하겠다 라고 하는 충분한 答辯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日에서 18日로 證言날짜를 순연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本人이 아마 어제 通報書가 날라갔기 때문에 오늘쯤 本人이 아마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通知에 대한 出席要求에 대한 판단 여부는 本人이 알아서 그 委員會 會議에 맞춰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本 委員會에서는 미리 證人의 出席與否를 豫斷을 해서 議事日程에 관하여서 지리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生産的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出席與否에 관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出席을 못할 경우에는 國民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出席을 안 할 경우에 國民들이 지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證言者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이제 오늘의 主要議題인 18日 증언에 관한 것은 예정대로 진행을 既히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대로 進行을 하도록 하고 이제 本 特委의 가장 중요한 議題중의 하나인 崔圭夏씨의 證人選定에 관한 議題로 넘어갈 것을 正式으로 勸議합니다.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文東煥 18日 거기에 대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 거기에 무슨 불의의 사태나 한 것이 있을 때는 法的인 절차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法的인 절차가 아니고 할 때에는 우리 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道先委員 李道先입니다.

우리 特委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또 다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 國民 모두가 매우 신중하고도 깊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次會議에서 與野幹事들에게 證人選定問題 또 委員會運營에 관한 問題를 與野가 한 사람도 반대없이 모두 위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로가 이해를 돌구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會議에 참가하면서 아침 報道나 낮의 報道를 들으니 18日로 예정되었던 證言聽取가 당초의 약속대로 안될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前 崔圭夏大統領에 대한 證人採擇이 오늘 결의가 강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는 特委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서운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會議에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1次 證人을 與野 異議없이 선정하고 또 그 일시와 장소 신문내용에 있어서 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日로 되어있던 證言聽取의 날이 또 幹事들의 합의에 의해서 18日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어떤 委員이 말씀하시기를 연기통지가 어제야 送達이 되었다고 했는데 먼저 立法審議官!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어제 통지가 되었습니까?

○立法審議官 吳聖均 8月9日 되었습니다.

8月8日 幹事會議에서 8月18日로 연기하기로 합의가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8月9日 아침 일찍 연기통지를 했습니다.

○李道先委員 8月9日 연기통지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만일 어제야 통지를 했다면 앞으로 委員會運營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8月9日 通知를 했다면 多幸한 일입니다. 그런데 1次 證人으로 選定되신 崔圭夏에 대한 證言聽取를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前 崔圭夏大統領에 대한 證人採擇을 論議합니다. 그것도 당초에 1次會議에서 앞으

로 追加되는 證人이나 또 證言에 대한 節次나 하는 것은 與野幹事들에게 저희들이 명백히 異議없이 委任을 했는데 유독 오늘와서 18日 崔圭夏에 대한 證人에 대한 證言聽取가 確實한지 안한지 까지도 不分明한 狀態에 또 한 사람의 證人을 採擇하자고 하는 理由는 納得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委員會의 運營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時間이 급합니다. 國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억울한 사람의 立場도 빨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是正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特委에서는 與野 共히 우리들이 各 政黨를 超越해서 하나의 不幸한 歷史的인 事件에 대해 옳은 立場에서 正義로운 立場에서 眞實을 밝히고 그 아픈 傷處를 마무리 짓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意見으로서 1次 選定된 崔圭夏의 證人 가운데에서 지금 論議하고 있는 平民黨의 金大中總裁께서 外國을 訪問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政黨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 政黨의 代表되시는 분이 國際的인 日程을 確約하고 外國을 訪問한다고 하는 데에는 다같이 聲援해 드리고 또 많은 成果를 얻어서 돌아오기를 祈願해 주는 그러한 立場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함께 듣는 證言 自體가 같은 證人에 대한 같은 禮遇와 같은 待遇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를 인정해 드리고 18日로 豫定되었던 證人들에 대한 證言聽取가 서로 맞물려서 證言이 되는 것을 國民들도 거대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調整이 되었으면 하고 그 1次 證言을 聽取한 연후에 또는 그 진행도중에서라도 어떤 다른 證人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 證人을 採擇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與野가 첨예하게 對立이 된다가나 지금까지 원만히 이끌어왔던 우리 特別委員會가 서로 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

제에 관한 한 委員長과 各 政黨의 幹事들이 다시한번 머리를 마주대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論議해서서 解答을 내주셔서 1次會談때처럼 與野委員들이 기쁜마음으로 그 내용을 수락하는 그러한 結果가 있었으면 해서 委員長께 議事進行에 관한 發言이 되겠습니다.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잘 들었습니다.

李海瓚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次證言者 네명을 選定하는데는 與野黨間에 異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幹事會談에서도 金相賢證人和 鄭基用證人 두명을 追加로 또 選定하는데도 與野間에 전혀 異議가 없었습니다.

다만 崔圭夏證人에 대한 選定與否에 있어서만이 앞에 吳景義委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民正黨이 反對하고 나머지 交涉團體들은 모두 다 贊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1次證言에 원래는 8명을 選定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네명을 하고 하고 다음날 네명을 하고 8명으로 選定하기로 合意를 했는데 현재까지 選定된 證人이 처음에 發表된 네명 그리고 어제 發表된 두명 이렇게 해서 여섯명입니다. 나머지 두명을 더 選定함으로써 1次證言者의 證人 選定은 일단 終了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두명중에서 崔圭夏證人에 대한 選定與否만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동안 崔圭夏證人의 選定問題에 관해서 무수한 討論을 했습니다.

民正黨에서도 證人의 必要性은 인정을 하면서도 시기와 證言의 形式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말씀을 하였고 野 3黨의 幹事委員들께서도 꼭 證人으로서 選定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상태에서 지난 15日동안 幹事會談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崔圭夏證人의 證人 選定問題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단계에 왔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동안에 있었던 幹事會談의 討論內容이면 證人 選定의 必要性 與否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서로간에 開陳되고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討論이라고 하는 것은 더進一步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遷延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지난 臨時國會가 끝난 以來로 8月이 대체적으로 各 特委의 活動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月 중순을 넘어서면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定期國會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13代 定期國會는 지난 國會와는 달리 國政監査를 20日동안 해야 되는 그런 國會입니다. 그리고 10月初부터 國會가 열리게 되면 10月 한달은 國政監査로 始終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1月과 나머지 기간동안에 豫算決算을 審議하게 되고 지난 臨時國會에서 上程하고 處理하지 못한 法案들 혹은 새로 上程될 法案들에 대한 改廢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事實上으로 9月이 넘어서면서부터는 國會의 業務가 대단히 늘어나기 때문에 特委活動은 現實的으로 어려워질 展望이 本委員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臨時國會에서도 持委가 構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特委活動을 하지 못했고 또 國會의 運營上 定期國會時에 이런 特別委員會의 活動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바람직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本委員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定期國會에서 處理할 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時間的인 心理的인 이런 것을 감안할때 실제로 特委가 現實的으로 運營될 수 있는 期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月下旬 혹은 9月初旬까지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本會議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特委活動을 원할하게 충분히 못한다고하면 定期國會때에 가서 그것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難望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우리가 8月12日 오늘 현재 崔圭夏證人에 대한 選定이 매듭이 지어져도 실제 證言聽取가 가능한 것은 19日 以後부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月下旬과 9月初旬에 걸친 극히 짧은 시기에만 證言聽取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時日을 지체하고 證人選定 與否를 지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選定하기 위한 勳議案을 提案을 합니다.

提案事由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채택 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 國政의 最高責任者였으며 軍의 總帥權者였던 崔圭夏 前大統領은 80年8月16日 光州事態등 騷擾에 政治道義上 책임을 느껴 下野한다는 聲明을 발표한 뒤 이제까지 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崔圭夏씨는 스스로 大統領職을 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事態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本 特委에서의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前職 大統領으로서 당연히 책임있는 證言을 하는 것이 國民과 歷史에 대한 公人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당시 合同搜查本部長이었던 全斗煥씨는 자신은 保安司令官이었기 때문에 大統領과 國防部長官의 명령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光州事態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在職當時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全斗煥씨가 光州問題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또 崔圭夏 大統領의 命에 의해서 일련의 搜查過程이라든가 일련의 業務를 執行을 했는지를 崔圭夏씨는 분명히 證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까는 당시 國民들을 戒嚴解除와 조속한 改憲 그리고 政治日程의 단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學生들도 14日 15日 兩日에 걸쳐서는 全國의 示威를 전개했습니다마는 崔圭夏 大統領이 中東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民主措置가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16日 17日은 거의 示威를 중단하고 學校로 돌아가서 향후의 民主化를 위한 討論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16日과 17日은 대단히 평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申鉉禧 國務總理도 中東을 방문중인 大統領이 歸國하면 5月20日 國會를 열어 政府의 具體的인 方案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月17

日 非常國務會議를 전격적으로 열어 戒嚴令을 확대실시하게 되었습니다 全國에 걸친 戒嚴令의 확대 실시는 大統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民主化를 요구하는 國民들의 요구와는 달리 非常國務會議를 통해서 全國에 戒嚴을 실시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절박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大統領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분명히 崔圭夏씨는 이제 證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는 5月17日 全軍指揮官會議에 報告되어 決議된 國保委 設置案이 本委員은 명백히 軍의 政治的 中立을 명시한 憲法에 위배되는 事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崔圭夏씨는 당시 大統領으로서 이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國保委가 거의 超憲法的인 機能을 발휘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國政의 最高責任者로서 이러한 國保委의 活動이 옳았다고 보았는지를 이제 분명히 證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5月17日 非常國務會議가 끝나기 이전부터 軍部隊가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屬하고 있던 서울大學校에도 戒嚴이 확대된 17日 24時가 아니고 17日 21時경부터 軍部隊가 進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他大學이라든가 他地域에도 이미 戒嚴擴大以前부터 軍部隊가 이동된 사실은 여러가지로 확인이 되고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戒嚴擴大以前에 軍部隊가 이동을 해서 民主人士들을 연행하고 學生들을 구타하고 했던 사실은 당시 大統領으로서 軍의 統帥權者로서 과연 이런 軍部隊에 投入命命을 하달했는지 아니면 이런 軍部隊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事後에라도 이런 사실을 報告받은 일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崔圭夏씨는 國民앞에 명백히 證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崔圭夏씨가 本 特委에 출석하여 증언할 事項은 매우 중요한 事項들이며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事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職 國家元首禮遇 운운 하면서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으려는 民正黨의 여러가지 입장은 真相調查를 회피 지연시키려는 政治的 術策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民正黨에서는 前職 國家元

首禮遇 운운하면서 崔大統領의 證人選定을 反對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더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盧泰愚 大統領候補도 지난 大統領選舉公約에서 분명히 이러한 입장을 KBS 放送을 통해서 表明한 바가 있습니다. 原文 그대로 引用하겠습니다. “不正腐敗 剔決에는 國家元首를 포함하여 어떤 聖域도 容認될 수 없다 法の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法の 위신은 땅에 떨어져 民主主義는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은 盧泰愚候補가 KBS를 통해서 스스로 表明한 選舉公約입니다.

그리고 本 國會의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이 法案은 與野가 滿場一致로 合意해서 통과시킨 法律입니다. 第10條에 「出席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명백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취지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도 明示되어 있습니다.

바로 現 大統領인 盧泰愚候補의 選舉公約 그리고 與野가 合意한 國會關係法에도 明示하고 있는 法の 정신을 民主黨 스스로 否認한다는 것은 議會政治를 위해서 法治主義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本委員은 단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70年代의 암울한 維新體制下에서 1976年3月1日 3·1明洞民主敎國宣言事件으로 前職 尹潛善大統領께서 有期懲役을 宣告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民主黨이 證人選定을 회피하려는 崔圭夏씨는 崔圭夏씨 자신을 바로 大統領으로 選出한 1979年11月 統一主體國民會議에 의한 大統領選出 反對集會一名 明洞YMCA事件이라고 합니다. 이 事件에서 尹 前大統領이 立件되어... 集會에 關連되었다고 해서 立件되어 保安司令部의 搜查要員에 의해서 搜查를 받은 前例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前職이든 現職이든 違法을 하면 法에 의해서 調査를 받고 罪가 있으면 處罰을 받아야 한다는 法治主義精神에 의한 前例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主黨에서 崔圭夏씨가 證言하면 자연히 全斗煥씨도 證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全斗煥씨가 證言

臺에 나가지 않기 위해 崔圭夏씨의 證言을 反對하고 있지 않느냐고 國民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本委員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事態에 關連이 있으면 당연히 證言할 義務가 있습니다. 이 證言은 앞에 말한 尹大統領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경미한 事項입니다. 우리가 崔圭夏씨를 먼저 證人出頭하고 있는 것은 바로 崔圭夏씨가 당시의 大統領으로서 公式的인 指揮責任者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崔圭夏씨가 前職大統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公式的인 指揮責任者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證人으로 選定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一般國民들이 光州事態에 實質的으로 關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一般國民들이 알고 있는 全斗煥씨 자신이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公式的인 指揮를 大統領의 命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崔圭夏씨 證言은 더욱 중요하고 關요한 것입니다. 이 證言過程에서 崔圭夏씨도 책임이 있으면은 그 책임에 따르는 결과가 처리가 될 것이고 全斗煥씨도 여기에 關連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반드시 證人으로서도 또 出席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事理에 맞춰서 光州問題의 本質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 本 特委의 基本的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圭夏씨의 證人選定問題 하나를 가지고 特委의 正常的인 運營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國民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제 大統領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前例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光州慘狀과 같은 엄청난 상황을 야기시키고도 國民앞에 證言하고 謝罪하지 않는 그런 前例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는 이 나라의 百年大計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解放後에 反民特委를 통해서 日本帝國主義勢力에 親日했던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했더라면 우리 民族의 기강은 오늘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었을 것이고 우리 社會는 훨씬

더 민주화됐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前職 國家元首 여부를 떠나서 調査의 事案에 필요한 證人은 國民의 이름으로 選定을 해서 證言을 듣도록 하는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 그리고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등에 관한 法律 두 法案의 基本極旨에 따라서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10條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등에 관한 法律 第2條에 의해서 崔圭夏씨를 本 特委 證人으로 選定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文東煥 예. 動議와 再請이 있습니다.

○李道先委員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해 주십시오.

○李道先委員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件 上程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提議된 文제가 18日 1次 證人으로서 出頭要請한 分들을 대상으로 지장 없이 證言을 청취할 수 있는 日程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事項이 있었고 그런데 一部에서 그날 못 올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러한 또 다른 政黨의 말씀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먼저 論議가 되고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證人採擇에 관한 또 動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議事進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議事進行을 원만히 해왔던 것처럼 한번 더 委員長과 各黨 幹事들이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議事進行에 관한 發言을 委員長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委員長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분에게 動議하는 發言부터 먼저 드렸는데 議事進行을 그러한 순서로 順理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委員長으로서 答辯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에 있어서 動議提案이 나왔으면 첫째로 그의 成立與否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고 그 앞에 件에 대해서는 19日부터의 證人豫定은 그대로 되도록 돼있고 서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거서 나오지 않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終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動議가 나왔고 動議에 지금 再請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動議 再請에 관한 것을 이제 贊反에 관한 것이 再請이 되었으니까 이제 贊反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道先委員께서...

○辛基夏委員 아니 委員長이 發言을 하고 있는데... 幹事가 發言을 달라고 하는 중에 委員長이 發言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넣고 있어요.

○李敏燮委員 그것은 내가 부탁했어요.

○辛基夏委員 委員長이 發言하고 있는데 幹事한테 같이 「마이크」를 넣느냐고...

○李敏燮委員 發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넣어요. 분명히... 지금 분명히 委員長께서 이 문제를 處理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시간도 있고 우리 李海瓚委員이 發言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討議할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쫓기는듯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졸속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民正黨의 李道先委員께서 動議를 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議事日程을 아까 與野幹事が 議事日程 合意를 보기를 18日의 日程을 먼저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을 듣더라도 이것은 19日以後의 일입니다. 당연히 18日의 日程이 확연하게 마무리되고 19日의 日程으로 넘어가는 것이 順理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李道先委員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補完해서 動議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분명히 지금 平民黨側에서 18日 19日에는 金大中 鄭東年 두 證人의 證言이 不可能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蓋然的인 확실한 사실을 토대로 만약에 또 나머지 두 委員들이 누구는 마음대로 自己事情으로 證言 延期하고 우리는 꼭 나가야 되느냐 우리도 좀 뒤로 가겠다 할 경우

에는 당장 우리 18일의 우리 運營日程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지 않고는 18일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證人を 기다리다가 만나오면 가는 이런 事態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 순서로 보아서 이것을 매듭 안짓고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人 채택문제부터 하는 것은 語不成說이기 때문에 우선 金大中 鄭東年 證人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確答과 또 그 外에 다른 證人도 빨리 確認해서 그 날 우리가 證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매듭짓는 것이 先決課題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4黨間的 幹事會議이 아니면 全體會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全體會議가 매듭이 안되면 우리 4黨幹事間에 이 문제는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문제대로 제기하고 일단 李海瓚委員이... 그러니까 제가 發言한 뒤에 委員長께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李海瓚委員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黨은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人出席에 관해서 절대로 이것을 회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이 왜 이 時點에서 適正하지 않은가 하는 주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事件을 調查하고 追跡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事件이 發生하면 그 事件의 顛末을 먼저 真相을 확인하고 그 真相을 토대로 해서 發生動機를 類推하고 나아가서 事後處理 結果를 結論을 맺는 것이 우리 歸納的인 一般論的인 우리의 搜查原則이요 모든 事件解決의 普遍的인 原則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18光州真相調查特委라는 그 名稱 그대로 5月18일에 일어난 光州事態 真相을 먼저 調查를 해보고 과연 發砲責任이 聯隊長에 있는가 그 위의 師團長에 있는가 大統領까지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밀의 真相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만 그 歸責事由가 연결될 수 있고 판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真相調查에도 들어가지 않고서 우리가 最終的인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책임을

을 규명하자고 해서 崔圭夏 前大統領의 發言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상 事理上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幹事會議에서 우리는 真相調查를 일단 들어가 보고 調查進展에 따라서 崔圭夏 前大統領이 꼭 밝혀야 될 또는 表明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진상도 밝히고 또 태도를 表明하고 立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民正黨이 積極的으로 주신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조건 출석해서 그것도 會議冒頭에 真相調查에 들어가는 이 點점에 출석해서 證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事理에 맞지 않다. 이미 與野가 合意해서 出席通知書까지 나간 證人은 자기의 個人事情이 있으면 사전에 通告없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與野가 合意안된 前職國家元首는 무조건 날짜도 받지 않고 우선 다음에 쓸 내놓을 證人으로 여기서 채택하자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事理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李海瓚委員께서 이것 충분히 말이지요 贊成討論을 거쳐야 될 문제입니다. 歷史에 記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基本立場은 우리 最高國家元首... 前職國家元首에 대해서 이 點점에 證人으로서 채택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前職國家元首禮遇 운운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必要充分條件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禮儀를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前職國家元首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는 禮遇를 갖추어서 우리가 證言臺에 세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인 것입니다.

지금 憲法에도 보면 前職國家元首에 대한 禮遇는 法律로 定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關係法令에는 前職國家元首는 國家의 元老로서 대한다 하는 원칙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基本憲法精神에도 國家元老에 대한 禮遇나 待遇는 보통사람과는 달리 하도록 하는 것이 基本精神이기 때문에 우리는 前職國家元首에 대해서는 신중히 그러나 真相調查에 지장이 없는 한계내에서 이 분에 대한 의견을 듣자하는 것이 우리 與黨의 立場입니다.

그리고 李海瓚委員이 아까 말씀드린 國家의

最高責任者이기 때문에 이 분의 證言부터 먼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첫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國軍統帥權者요 또 最高責任者입니다. 만약에 모든 眞相이 제대로 안 밝혀지면 이러한 문제도 마땅히 糾明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責任을 규명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밑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어가지고 最高責任者한테까지 그 責任이 과연 가는지 안가는지 순서를 밑에서부터 우리가 조사해 올라가자는 것이지 最高責任者는 무조건 이것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最高責任은 眞相調査結果에 따라서 책임이 糾明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全斗煥 당시 國軍保安司令官이 大統領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大統領은 憲法이 보장한 統治權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保安司令官은 憲法과 關係法이 보장한 그 法에 따라서 大統領의 지휘감독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5월16日 17日 평온한 가운데 왜 戒嚴이 全國적으로 擴大되고 非常國務會議가 열렸느냐 이러한 狀況에 대해서 과연 大統領의 決斷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14日 15일에 굉장하 「테모」가 심했습니다. 5월16일은 다소 小康狀態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光州에서도 「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17日 물론 다소 小康狀態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은 全國의 大學生들이 梨花大學에 모여가지고 5월22日 全國적으로 모든 國民과 學生들이 蜂起를 해서 이 政權을 타격을 가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學生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조차 있고 風前燈火와 같이 全國적인 爆發現象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暴風前夜의 靜寂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非常戒嚴擴大의 妥當性 有無에 관해서는 大法院 判例에도 보면 大統領의 統治權에 관한 妥當性 예를 들면 戒嚴의 宣布와 擴大 등에 관한 모든 判斷에 대해서는 司法府도 判斷할 수 있는 對象이 아니다 이것은 統治

權者의 高度의 政治的인 判斷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歷史的인 責任은 大統領이 政治的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司法府의 判斷對象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명확한 大法院 判例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保委 設置가 超憲法的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허락했는가 또 이러한 活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얘깁니다.

이 당시에 戒嚴이 長期化되었습니다 10·26 이후 5·17까지 戒嚴이 長期化되고 그 당시에는 戒嚴은 戒嚴이지마는 모든 生活에 불편이 없이 대부분은 警察이 앞에 나서고 軍은 뒤에서 자제하는 상태에서 長期化된 그러한 戒嚴狀態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5월에 들어서 事態가 惡化되고 光州의 事態가 全南 全域에 퍼지고 또 22日에는 여러가지 國家顛覆을 위한 음모가 各界各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戒嚴司令官이 그 당시에 戒嚴下에서 모든 權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司法府 權限의 一部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戒嚴司令官의 權限입니다. 이런 狀況이기 때문에 모든 國家의 非常的인 業務를 우리가 충실히 戒嚴司令官이 다 감당할 재주도 없고 또 行政機關은 戒嚴法下에서 制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難局에 처한 모든...

그 당시 崔圭夏 大統領도 危機管理政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危機管理政府下에서 더군다나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는 限時的인 것입니다. 憲法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戒嚴法에 의해서 이것은 制約을 받고 또 非常業務의 解除와 더불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限時的인 機關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5·18當時 戒嚴擴大理由는 軍部隊가 事前에 이동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앉아 제신 鄭 雄委員께서도 이 部隊가 16日부터 現地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軍關係에 대해서 專門家가 아니

고 그 당시의 상황을 100%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당시 5·17에 非常國務會議가 열리는 시간과 이 軍部隊가 現地에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零時를 期해 가지고 모든 全國에 非常戒嚴을 實質的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軍部隊가 그 비슷한 時日에 이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全國戒嚴擴大를 效率的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光州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空輸旅團만 해도 全州와 大邱 이런 모든 지역에도 釜山에도 다 동시에 주둔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辛基夏委員 지금 李幹事가 하는 말은 證人의 자석으로 나와서 證言을 해야할 말이지 崔圭夏씨를 證人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냐 與否問題는...

○李敏燮委員 지금 李海瓚委員이 열가지들 자기가 崔圭夏大統領을 證人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反對討論이올시다.

○辛基夏委員 反對討論... 이름만 그렇지 內容은 反對討論이 아니잖아요?

○李敏燮委員 얘기가 거북하면 잠깐 나갔다가와요.

그래서 이 部隊가 事前에 16日 現地에 주둔하고 있었다 移動했다는 것은 앞으로 調查過程에서 나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왜 崔圭夏 前大統領이 證人으로 나와서는 안될 것인가 그것과 論理的으로 관계가 되어야 돼요.

○李敏燮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李海瓚委員이 말씀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海瓚委員이 얘기하기를 이 軍部隊의 投入을 과연 大統領이 命令을 했는지...

○申河澈委員 5·18歷史 工夫하는 것이요? 빨리 결정해야지...

○李敏燮委員 지금 李海瓚委員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제가 反對論理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反對論理를 전개하는데 崔圭夏씨가 왜 나와서는 안되는지 그것이 論理的으로 안되어 있어요.

○李敏燮委員 이리이러한 이유때문에 결론적으로 崔圭夏 大統領이 證人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結論的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論理를 펴가는데 왜 反對해요?

그리고 아까 崔圭夏 大統領이 과연 이러한 軍部隊를 投入하는 命令을 具體的으로 下達했는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崔大統領을 證人으로 내세워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反對論理를 편다면은 軍의 모든 指揮統率은 여기에 앉아계신 鄭雄將軍님 잘 알겠습니까마는 軍組織法에 의해서 명확히 命令權者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軍法은 매우 現代化되어 있고 體系的으로 되어 있습니다. 戒嚴下에서 軍部隊移動은 原則的으로 戒嚴司令官의 모든 責任下에서 이루어지지 全國의 狀況變化에 따라서 배치되는 軍人이 어떻게 大統領의 事前裁可를 받아서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은 常識的인面에서 얘기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는 아까 前職國家元首禮遇운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많이 불편하신 모양인데 조금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盧泰愚 大統領이 選舉公約에서 聖域은 없다 法의 處罰을 外面하는 사람은 民主主義를 外面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選舉公約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崔圭夏 大統領을 여기 證言臺에 세우는 것은 被疑者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大統領의 어떠한 特別處罰에 관한 문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 任期中의 統治權行事的 妥當有無를 얘기하기 위해서 거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盧泰愚 大統領이 法을 어긴 사람은 現職이든 前職이든 大統領이 法律의 處罰對象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民主主義의 위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이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國監調法을 滿場一致로 決議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現職政治人이든 과거에 責任者였던 또 前職公職者였던 누구도 불평등하지 않게 이 證言의 對象이 되어야 되고 또 調査의 對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기를 尹潽善 前大統領도 76年度 또 3·1明洞民主宣言事件이라든가 YWCA 事件 이 당시에 有罪判決도 받은 바 있고 또 그 당시에 大統領이 搜查를 받은 바도 있는데 왜 崔圭夏 大統領은 證言臺에 못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判斷을 해야 될 것은 現職大統領이 現職에 있으면서 行爲에 대한 責任과 그 職을 떠난 뒤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限界가 있다는 것입니다. 尹潽善 前大統領은 그 당시에 大統領職을 물러난 뒤 한참뒤에... 한 10년쯤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까마는 10年 안됐는지... 이런 狀況下에서 그 당시에 改憲論議가 禁止된 狀況에서 모든 宗親會나 結婚式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集會가 禁止된 狀態였습니다. 이 당시에 YWCA에서 結婚式을 한다고 모든 對象者들한테 또 在野人士한테 招請狀을 보내놓고 막상 가서보니 結婚式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政治的인 集會와 모든 油印物이 나누어지고 이러한 事件이 벌어져서 緊急措置違反事件으로 立件됐는지 않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이 事件으로 인해서 尹潽善 大統領은 어떤 搜查線에 올랐는고하니 그런 大會를 하는 費用을 누가 냈느냐 분명히 돈을 낸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面에서 搜查線에 올라가지고 搜查官들한테 잠시 調査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아직 確認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尹潽善 大統領이 在任中에도 違法事項에 대해서는 處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統治權과 관련해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崔圭夏 大統領을 이 자리에서 證人으로 세우자고 하는 것은 統治期間中에 統治權行事に 대해서 妥當性 有無를 갖다가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證人으로 듣자는 얘기입니다. 崔圭夏 大統領도 退任中에 예를 들어서 손수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罰金を 먹던 무슨 司法措置를 취했던 합니다. 前職大統領이라고 例外가 있을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이 두 事件은 根本的으로 그 性格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긴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싶은 것은 우리 李海瓚委員의 말꼬리를 잡는 것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大統領이 下野하는 것이 상 커다란 責任表明이 없습니다. 崔圭夏 大統領이 下野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政局을 安定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責任을 지고 내가 물러난다 그 당시에 사과하고 下野하는 것으로서 그 분에 대한 謝罪는 최고의 刑을 받았다고... 刑이라면 語弊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로서는 최대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前職大統領이 謝罪를 안하는 前例를 남겨서는 안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證言을 들어서 真相을 判斷하자고 證人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判에 謝罪를 하지않는 事例를 남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被疑者로 斷定하고... 이 證言의 聽取 보다는 하나의 政治的인 報復으로 이 분을 갖다가 國會에 나와서 여러가지 곤욕을 주자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解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與黨이던 野黨이던 우리는 이렇게 獨善的인 思考方式 모든 것을 딱 規定하고 너는 罪人이다 光州事態는 무엇이다 이렇게 性格規定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禁忌視하자는 것이 우리 基本立場이었습니다. 白紙狀態에서 출발하자는...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마땅히 是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證人採擇 節次過程에서 다시 再論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요구한 그러한 모든... 먼저 18日 日程에 관해서 분명히 매듭을 짓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論議를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委員長이 節次에 관한 얘기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金仁坤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께서 會議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形式을 갖추어가지고 勳議를 했으면 그 勳議를 받아가지고 成立되는가 안 되

는가 이를 물으시고 成立된다면 採擇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不幸한 사람들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찌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光州 5·18事態라는 特委를 만들도록 해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동시에 더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野黨人士가 大統領되게 위해서 宣傳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떤 與黨人士들이 隱蔽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할 때는 다른데에서 아무리 虛偽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 문제 해결할 때 만큼은 이 가슴에다가 아버지를 잃고난 자식의 가슴 남편이 虐殺된 마누라의 가슴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에 어긋나고 嫌惡를 느꼈어요. 여기가 말장난 하는 곳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만이 우리의 民族和合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政略으로 해서 術策으로 해서 遲延術 쓰고 이래서도 안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大統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宣傳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비참하게 말로는 할 수 없도록 저는 그것을 봤어요. 찢러 죽이고 쏘아 죽이고 두드려 죽여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페인트」를 칠한 비참한 상황을 봤어요. 여러분들 못 본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眞實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전대 會議를 분명하게 進行하시는데 形式을 갖춰가지고 進行해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強하게 나오길래 세가 弱해서 그랬는데 動議에 대한 再請이 있었습니까.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動議가 成立된 것을 宣布합니다.

○李敏婁委員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아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18日 예정대로 執行이 됩니다. 그리고 金大中先生이 便紙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별 문제입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만약 金大中總裁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法 節次대로 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動議가 成立이 됐고 異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動議를 執行하겠습니다.

이제 動議에 대해서 贊反討論을 시작하겠습니다.

贊反討論은 原則적으로 反 贊 反 贊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反對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鄭東星委員 反對討論입니다.

委員長께서 우리 光州特委 運營에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여기에 委員님들이 各黨所屬을 代表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이나 자기 黨에 대한 입장 또 다른 黨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세워가면서 發言이 계속되어야 우리 委員會가 원만히 運營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이 순간 우리 委員會는 지금 이 國會議事대로 進行되는 게 아니라 갖은 暴言과 갖은 여러가지 表現이 참으로 놀랄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께서 적절히 警告도 주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같은 同僚委員가운데 李海瓚委員의 動議內容을 여러가지 지적 말씀을 듣고 참 가슴 아픈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 光州事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政府가 수차 調查해서 發表했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믿는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代 國會에서 그 眞相을 정확히 調查하자고 지금 이 特委가 進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調查해 보지 않고 우선 證人問題를 하나 꼬집어 내가지고서 우선 大統領부터 무조건 責任 云云하는 發言, 또 被疑者로 規定하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既定事實화해 놓고 罵倒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證人을 데려오자고 하는 그런 動議內容을 말씀할 때 참으로 同僚委員으로서... 그렇다면 구태여 調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既定事實화된 것을 가지고 證人으로서 데려오사 하는 內容의 動議內容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民正黨은 故意로 崔圭夏 大統領을 證人으로 出席시키는 것을 反對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는 故意로 反對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證人으로 우리도 要請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民正黨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黨으로 한쪽으로 規定짓고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交涉團體를 代表한 委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光州事態에 대하여 偏狹된 생각부터 우리는 갖지 말고 그 真相調查에 着手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委員長께서도 저음 委員長 人事때부터 軍靴발에 짓밟히고 正義가 눌리고 여러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偏頗의이고 一方的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委員會의 분위기는 무조건이 真相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이미 規定해 놓고 調查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調查가 아니라 이미 既定事實化된 문제를 파헤치는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事態에 대한 調查가 끝난 다음 責任 운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 그렇게 一方的으로 民正黨에 대해서 政府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저희도 얼마든지 內亂陰謀事件이라든가 그 事件에 緣由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常識以下の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自制하고 調查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밝혀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偏頗의인 생각으로 規定해 놓고 政治的인 攻勢로 一貫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委員長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留意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光州事態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순간이 歷史的인 순간이기 때문에 한 委員으로서 저의 發言이 어떠한 責任을 질지 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同僚委員 가운데 왜 光州事態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坐視했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政略 術策 遲延術 이런 것도 얘기가 됐습니라마는 우리 民正黨으로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假飾과 虛飾을 버리고 가장 正直하게 이 事態의 원

인과 發生過程 結果 여기에 대해서 調查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光州事態 當時의 當事者가 지금 이 特委 委員會에도 몇 분 계십니다. 이 光州事態는 아직도 그 糾明이 되지 않았습디다. 일부 組織化된 暴徒에 의한 暴動인지 아니면 이것이 義舉인지 또 軍의 對應은 정당했는지 이런 것을 調查해서 國民앞에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13代 國會의 特委의 任務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崔圭夏씨가 오는 것이 옳으나 아니냐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鄭東星委員 거기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委員長은 지금 民正黨에 대해서 既定事實로 몰아 부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光州事態에 대해서 國民들은 政府의 公式發表를 받고도 있고 일부는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政治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시간에 13代國會에 들어와서 特委의 委員으로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歷史에 記錄될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은 분명히 法과 秩序가 尊重되어야 하고 또 모든 문제에 분명한 解答과 調查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했건 못했건 國家元帥로서 이 나라의 大統領으로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던간에 그 분에 대한 禮遇問題도 國會에서는 반드시 尊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國家元帥도 여기에 證人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光州事態에 대한 것은 당시 政府의 大統領이 잘못되었고 그를 庇護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偏頗의이고 잘못된 우리 光州特委運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大統領의 證人採擇關係도 앞으로 特委運營過程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崔圭夏 前 大統領은 여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與小野大입장에서 表決處理만 能事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前 大統領의 證言을 놓고 政治攻勢에 목표를 둔 過多한 表決處理는 우리 委員會에서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反對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吳景義委員 말씀하세요.

○吳景義委員 民主黨의 吳景義委員입니다. 지금 先輩委員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本會議를 하기 전에 幹事會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崔圭夏 前大統領에 대해서 충분히 禮遇를 해드리자 그리고 또 정중히 모시도록 하자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光州事態真相調查를 하는데는 진실로 前職大統領에 대한 責任이라든가 그 당시의 모든 문제를 파헤치는데는 꼭 이분이 나오셔야 된다는데 대한 것은 별 異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野黨 3黨에서 제가 提議를 했습니다마는 近日에 그 어른을 한번 찾아뵙든지 아니면 우리가 書翰을 보내든지 해서 다른분들 보다는 다른 禮遇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道理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어른도 眞情 나랏을 생각하고 光州問題를 解決하는데 앞장서서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사실은 民正黨側 幹事님이 그렇게 合意를 하는 것은 좋는데 우리黨 立場이 있으니 議論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議論해 본 結果가 崔圭夏 前大統領을 찾아뵙을 수도 書翰을 보낼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野黨 3黨은 또한 저희 民主黨 立場은 崔圭夏 前大統領을 모시는 문제를 놓고 證言臺에 나오시기까지는 어떠한 方法이라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民正黨의 말씀처럼 언제 나오셔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時差別로 事案別로 段階的으로 처음부터 첫날 崔圭夏 前大統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事態의 모든 眞相을 충분히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부터 그것은 그때 당시 平民黨側 要求였습시다마는 밑으로 흘러 내려가자 調查를 위에서부터 해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金大中總裁도 나오시고 崔圭夏 前大統領도 이 자리에 모시도록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民正黨側에서는 反對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野黨側에서는 사실은 그때 讓步를 하고서 周永福씨하고 李煥性씨를 모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첫 質問臺에... 그때 당시 첫 合意는 11日 12日이었습니다. 幹事會議를 여러 번 하면서 문제의 解決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시다마는 그러던 것이 오늘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어쩔 수 없는 狀況이 아니냐 그 當爲性이나

不可避性이 어쩔 수 없는 狀況에 온 것이 아니냐 물론 18日 그날 우리가 證言도 듣고 다시 또 回附를 해서 여러 문제를 學論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實質的인 面에서 民正黨側에서 이 분을 내세울 수 있는 意志만 보여줘도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시다. 그랬는데 民正黨은 民正黨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은 사실은 어느정도까지는 입을 수도 이해가 가는 部分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쳤지 않느냐 기다리는 것도 限界가 있는데 너무 지나쳤지 않느냐 그러면 이 光州問題를 파헤치려면 앞으로 證言臺에 나올 분이 적어도 100名은 물론 벌써 넘었습시다마는 한 이 삼백名 안 되겠느냐 光州問題를 解決하려면... 지금 各黨에서 계속해서 追加로 申請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정 이 5·18光州民主化運動이었다 暴徒들이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前大統領이라고 해서 못 나올 이유는 무엇이나 그러면 이 분이 꼭 나와야 되기는 되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어서 될 일이나 資料가 지금 몇「트럭」이 될 지 모른다 이거예요. 「폐이지」는 날이 갈 수록 늘어갑니다. 이것도 檢討를 해가지고 충분한 分析을 해서 일출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崔圭夏 前大統領 이분 한 분 문제때문에 우리의 幹事會議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원점으로 돌아갔었고 그러다가 다행히도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光州民主化運動을 왜 했으며 그 眞相調查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맡은 任務가 얼마나 重要하고 또 우리사명이 얼마나 莫重하다는 것도 再論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金仁坤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번 會議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죽어서 벌써 흩이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자기 목숨이 天命으로 죽은 것이 아닌데도 누구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銃 한 방도 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나서야 이 문제

를 해결하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當時의 國政最高責任者는 崔圭夏前大統領이다 이거야! 그래서 勃發動機부터나 모든 것을 調査하는데에도 이분이 나와야 되지 않는 이때쯤은 모든 것을 且置하고라도 金大中씨 內亂陰謀罪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희 民主黨 立場에서는 勃發動機부터 그 이전의 問題點을 파헤쳐보자 그렇게 하려면 崔圭夏前大統領은 마땅히 나와야 한다.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더 못기다린다 聖域이 없다는 얘기 例外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民主黨에서도 일일이 이것 일거할 필요 뭐 있습니까? 光州問題 調査를 왜 해야 되며 光州市民의 名譽回復을 왜 시켜줘야 되고 歪曲된 事實을 바로잡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被害補償者들은 앞으로 어떻게 對策을 세워서 어떻게 講究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枝葉의인 問題로 오늘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쪽편에도 一理있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問題의 核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顛倒시키고 자꾸 糊塗시키는 듯한 인상을 저는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光州問題를 진짜 쫓아가는 이 眞相을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文字 그대로 義學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暴徒化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時差別로 段階的으로 時宜適切하게 이 眞相을 調査하기 위해서는 崔圭夏前大統領이 지금쯤은 나오실 때다...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資料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結論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表決이 되지 않고 원만한 合意를 이룬다면 그 이상 더 錦上添花가 없지요. 그러나 民主黨 입장에서는 反對를 하니깐 어쩔 수 없이 빨리 이 問題를 結論짓고 表決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崔圭夏前大統領을 이 證言臺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贊成發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고맙습니다.

金吉弘委員 말씀하세요.

○金吉弘委員 民主黨의 金吉弘委員입니다.

앞서 野黨委員들께서 우리 民主黨이 崔圭夏前 大統領의 證言問題를 이유로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會議을 故意的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金大中總裁의 證言과 결부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金大中總裁께서 자신이 光州事態의 利害 當事者이며 또 자신만이 光州事態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金大中內亂陰謀事件이 조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證言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 遊說過程에서 본인이 내가 大統領으로 當選되거나 國會에 들어가게 되면은 1次的으로 光州事態를 糾明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黨 幹事會議에서 1次的으로 證人을 周永福 前國防部長官 다음에 李煥性 前 戒嚴司令官 金大中總裁 鄭東年씨 등을 證人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野黨 쪽에서 내가 平民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崔圭夏 前大統領과 金大中總裁 證言을 連結시키면서 崔圭夏 前大統領이 證言臺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은 證言할 수 없다는 식의 報道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간에 저희 民主黨側에서 보면은 金大中總裁가 證言을 하지 않기 위해서 故意的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與野 幹事會議를 통해서 기위 확정된 證言 聽取가 엄연히 法的效力을 갖고 있고 그것이 本 特委의 첫 本格活動임을 國民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첫 會議에서 첫 證言을 듣는 이 마당에 여기 委員長님께서도 平民黨 副總裁이시고 또 여기 平民黨 委員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報道를 통해서도 이미 보았고 또 그 다음에 어제 李海瓚幹事께서 우리 李敏燮幹事에게 우리 總裁님이 19日 比律賓으로 떠나시기 때문에 證言日字를 29日로 미루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放送에 報道된 것과 같이 11時30分에 李海瓚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反對討論에 앞서서 委員長님께서 확실히 18日 會議에 金大中總裁께서 證人으로서 나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反對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은 贊反對論의 내용이 아닙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니까 委員長에게 내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지금 反對討論합니다.

○金吉弘委員 아울러 저는 이것이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問題에 대해서 우리 黨의 基本立場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黨은 前任大統領의 證言에 앞서서 本特委가 그에 합당한 調查節次를 거쳐서 前任大統領의 證言이 꼭 필요하다라는 客觀的인 結論이 導出되면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常識과 順理에 맞는 얘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우선 光州事態와 直接的인 관련이 있는 當事者들을 우리가 1次的으로 證人으로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戒嚴軍 關係官들 또 光州市民 學生들로부터 證言을 청취한 연후에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與否에 대해서 與野가 협의해도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本特委가 이와 같은 順理的인 調查節次를 거치지 않고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부터 청취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特委가 真相糾明을 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光州事態 당시 合法的인 大統領의 統治權行使에 대해서 一方的으로 잘못된 것으로 罵倒를 하고 있는 마당에 前任大統領이 아무리 솔직한 證言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주장에 同調 안하면 輿論裁判으로 흘려가지고 진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政治文化 수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當時 大統領의 統治權行使가 國家最高 指導者로서 國內의 諸般事項을 고려를 하고 憲法과 法律에 정해진 合憲的인 節次에 따라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時點에서 그 당시의 狀況을 고려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잘 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事態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光州特委의 調查過程이 感情的으로 흐를 可能性이 있다고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崔圭夏 前大統領께서 당시에 國政 最高責任者였던 만큼 證言過程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서는 그 당시의 北傀動向이라든지 또 우리의 對應態勢 그 다음에 國際情勢 이런 것을 얘기하자면 현재 또 南北會談이 進行이 되고 있습니다만 國家元首로서 公開하지 못할 그런 國家機密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이 더구나 外交官을 지내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런 문제라면 제가 옛날에 취재를 해서 압니다마는 아주 신중하신 분입니다. 조금이라도 國家安保라든지 國家利益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본인이 절대 말씀 안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本特委에서 野黨側이 數的인 위세만 믿고 前任大統領의 證言을 말이죠 不信한다든지…… 이것은 假定입니다마는 僞證이라든지 이렇게 몰아 붙인다면 또 다른 政治的 論爭을 誘發합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國民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可能性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오늘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과 관련해서 이같은 問題點을 지적하는 것은 杞憂가 아닙니다.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벌써부터 野黨側은 真相調查도 하기 전에 光州事態에 대해서 虐殺이니 義擧니 民主抗爭이니 먼저 光州事態 性格을 規定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野黨側이 崔圭夏 前大統領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을 전제하고 罵倒할 것이 明若觀火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真相調查가 되겠습니까? 政治는 어디까지나 現實이니 만큼 與野는 바로 그 現實의 바탕위에서 國民이 납득할 수 있는 方向과 方法으로 光州事態에 대한 真相調查活動을 진척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調査進行 過程을 봐가면서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證言問題도 우리가 충분히 討議 하고 論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本委員은 이제 本 特委가 하루빨리 光州 事態와 直接的으로 관련이 있는 18日 證言부터 論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順理的인 節次가 취해져서 真相調査가 순조롭게 진척이 되면은 적당한 시기에 崔圭夏 前任大統領이 이 자리에 나와서 證言을 하시든지 아니면 會見하시든지 안그러면 단 方法으로 자기의 입장을 解明하도록 우리 民主黨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봤지마는 과거의 與黨은 數的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政局이 경색되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거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찾아 볼 때 굳이 野黨側에서 數의 힘으로 밀어가지고 強行해서 통과시킨다면은 그 뒤에 올 政局梗塞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民主主義는 妥協과 對話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은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證言問題가 사건의 本質과 관련 조금 순서가 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與野가 오손도손해 가지고 真相調査活動에 들어가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特委가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與野 政局이 梗塞이 되고 우리 民主黨이 불참한다든지 野黨이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國民들이 보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與野가 다같이 舊時代의 一方的 힘에 의한 強行 또 反對를 위한 反對 이런 식의 옛날 政治의 作態를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委員長님께서 내가 反對 討論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協議를 하셔가지고 좋은 結論을 導出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더 하실 분 말씀하세요.

○朴煥太委員 朴煥太委員입니다.

우선 이 動議의 內容이 좀 不分明하기 때문에 動議하신 분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崔圭夏 前任大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採擇을 하면 언제 召喚을 하겠다는 그 점이 確實視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召喚해서 어디에서 證言을 듣겠다 하는 그것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海瓊委員 崔圭夏씨의 證人이 選定이 되면 證言할 時間을 決定하는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12日 證言者를 午前에 두名 午後에 두名 選定했다가 12日 證言 一切가 어려워서 18日로 延期를 했고 또 18日 證言에 있어서도 證言如何에 따라서는 時間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崔圭夏씨가 證人으로 選定이 되면 崔圭夏씨의 出席時期에 관해서는 會義를 運營하면서…… 證言하지도 않는데 나와서 우두커니 기다리시도록 하는 것도 禮儀가 아닌 것 같고 꼭 出席해서 證言할 時期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出席時期에 관해서는 委員長한테 委任을 해주면 委員長이 會議를 進行해 가면서 會議의 進行을 보아하니 요다음 몇時頃에는 그 證言者가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 時期에 맞춰서 出頭時期를 定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번 通過된 證言鑑定法에 의해서 出席時期는 1週日前에 通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合理的으로 運營을 해서 出席은 1週日前에 通報를 해놓되 명확한 時期에 관해서는 運營의 妙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出席時期에 관한 것은 委員長한테 一任을 해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出席場所에 관해서는 모든 證人은 國會特委의 會議場에서 證言을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特委에 參與하고 계신 모든 委員들께서 證言을 듣고 事理를 판단하시고 또 證言內容에 관련해서 訊問을 하실 것 등은 訊問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서로간의 충분한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訊問과 證言이 오고가야만 事態의 眞實을 우리가 發見하는데 가장 有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出席場所는 特委의 會議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감사합니다. 잘 說明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與野가 이 문제 즉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證人 出席問題에 관해서 조금 한발씩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崔圭夏 前任大統領이 언제 證言할 것인지 확실히 예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오늘 이 時點에서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證言을 듣는 決議를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李海瓚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證人으로 부를려면 7日 以前에 반드시 召喚狀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證人으로 採擇해서 召喚을 하면 될 것이지 미리 證人으로 採擇을 해놓고 召喚은 또 委員長께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時期에 한다는 것은 뭔가 좀 前後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 아시다시피 野黨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委員會를 召集해가지고 崔圭夏 前任大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할 수도 있고 召喚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확실치도 않은 日字를 미리 예정해서 오늘 꼭 決議를 하자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順理대로 하면 그날 決議하면 날짜까지 정해서 訊問의 요지와 召喚狀을 동시에 보내는 것이 누가 봐도 合理的이고 또 法에 따른 節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분리해서 미리 證人 採擇부터 하자는 것은 저로서는 남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꼭 이것을 表決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번째는 아까 우리 吳景義委員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證言이 光州事態의 真相을 糾明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國民들도 動議를 하시리라

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도 그 점에 관해서는 굳이 反對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좀 反對하고 싶은 것은 꼭 우리 國會가 前職大統領으로서 禮遇도 해줘야 할 사람에게 直接的으로 이렇게 證人으로 採擇하고 召喚까지 決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再考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國會에서 이리이러한 證言이 要望된다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證言이 光州事態의 真相을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意志만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이 가장 禮遇를 갖추어서 우리가 國會로서의 禮遇를 갖추어서 相對方 前大統領께 전달이 된다면 그분께서 經綸도 있고 事理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어떤 形式으로 國會의 調査에 協調하시겠다고 아마 말씀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證言臺에 直接 나오신다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方法으로 立場을 또 歷史의인 사실을 證言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崔圭夏 前任大統領의 意向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 점에 관해서 本人 自身이 一言半句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이 마당에 성급하게 증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決議를 하고 召喚까지 예정을 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이것을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가 아니고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動物입니다. 禮遇를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나와서 證言을 할 수 있지만 強要性을 면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거기에 協調를 안할 可能性도 있습니다. 거듭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被疑者가 아니라 證人이니까 證言은 우리 國會調査에 協調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拘引도 事實 그런 次元에서 다 포기하기로 이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좌우간 저는 아까 4黨幹事間에 直接的으로 召喚을 決議하는 이런 方法이 아니고 禮遇에 맞게 어떤 式으로든지 崔 前大統領의 意見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기는 式의 意見表明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方法을 研究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與野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다 전에 혼한 말입니다마는 마치 마주 달려오는 汽車가 충돌할 것같이 생각이 났지마는 그것이 멈춘다든지 피해가는 이러한 高度의 政治力量

을 與野간에 발휘한다 이렇게 國民들이 좀 讚辭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13代國會初부터 與小野大라는 이러한 현상때문에 많은 國民들께서는 우리의 政治판이 잘 굴러갈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國會의 초반에는 與野가 여러가지 難關을 극복하고 그래도 잘 合意를 함으로써 일부 國民들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다른 特委에서 野黨의 一方의인 表決強行이라든지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國民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 國會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3代國會에서 國民들을 위하고 國民들을 안심시키고 國民들로부터 讚辭와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꼭 表決로 가지 말고 그 最後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지혜를 한번 더 발휘해 보는 것이 저는 옳지않나 이런 뜻에서 4黨幹事들이 아까 論議하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舉論을 해 가지고 崔圭夏 大統領께 어떻든 이 뜻이 전달이 되고 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意思表明을 해 가지고 그것을 들어 보고 그래도 안되겠다 할 때 우리가 召喚을 하는 방법을 다시 論議하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國會는 잘 아시다시피 與野가 모두 같은 배를 탄 共同運命體입니다. 이 國會를 잘 運營하는 데는 與野의 슬기로운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성급한 表決強行은 反對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金正秀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예.

○金正秀委員 會議가 너무 지루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與黨 同僚委員들께서 崔 前職大統領의 禮遇問題때문에 證人으로 채택하는 것을 反對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前職 崔大統領을 우리는 禮遇하기 위해서 이 證言臺에 證人으로 불러

와야 된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光州民主化運動이 일어나고 난 것이 벌써 10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統治의 最高責任者인 崔圭夏大統領이 한번도 온 國民이 이 眞相을 밝히라고 외쳐도 한마디의 말도 없이 지금 默秘權行使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國民은 정말 崔大統領은 厚顏無恥할 정도다 그래서 많은 誤解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崔大統領은 그 당시 大統領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연 實權이 없는 허수아비 大統領이다 그래서 측은하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의 모든 책임은 崔圭夏 大統領이 져야 된다 하는 이런 說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崔圭夏 大統領이 이제 이 光州民主化運動真相이 特委에 와서 떳떳이 그 분이 그 당시의 모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밝히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前職大統領을 禮遇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서 강조해 들것은 그 光州民主化運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歷史的인 사실을 또 그것도 가리고 隱蔽된 그 歷史를 바로 정리하려고 하는 이 國會에 와서 證言을 하는데 과거 지엄한 자리 때문에 어떤 大統領은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庇護하는 同僚委員이 있다든지 또 나를 감히 證言臺에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오만한 大統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大前提를 저는 해 둡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가지 人間關係에서 感傷的인 義理로 또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名分없는 論理로 만일 계속 崔圭夏 大統領의 出席을 拒否한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많은 國民들이 與黨쪽에서 그 眞實을 隱蔽하려고 한다 또 그 政權에 연루된 者들을 庇護하려고 한다 하는 誤解할 可能性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崔圭夏 大統領이 證言臺에 證人으로 나서도록 우리가 決議를 하는 것이 오히려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儀이고 또 우리가 이 眞實을 밝히는데 절대 필요불가결한 그 決議다 그래서 나는 이 崔圭夏 大統領이 證人으로 나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決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贊成發

함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兩便에서 충분히 얘기했는데 終結하는 방향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贊反討論은 한사람이 한번씩만 發言하게 됩니다.

○李光魯委員 委員長!

○金仁坤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그쪽에서 금방 하셨으니까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합시다.

○李光魯委員 저는 이런 會議를 해 본 일도 없고 文字 그대로 병아리인데 병아리라도 그야말로 孵化場에서 깐 병아리웁시다.

그래서 전혀 잘 모르는데 나는 우리 幹事님들이 다 協議를 한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혼자 느꼈습니다.

첫째 證言臺에 세운 사람들이 당시 戒嚴下에서 戒嚴司令官 國防長官 이쯤 되면은 全國에 일어나고 있는 一般概況에 대해서 一般狀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어느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證言臺에 서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議事堂에서 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演劇團에서도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는 것으로 여태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휘날래」를 장식하면은 벗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計劃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루종일 옥신각산하는데 이것 生産的인 會議인가 하는데 참 일면 실망을 느끼고 또 각자 다 委員님들이 크게 소리쳐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언제 오실지도 언제 그분이 證言臺에 설지도 모르는데 여러 同僚委員들이 얘기하실 대로 온다는 것만은 既定事實이었다면은 하기야 오늘 決定을 해 버리면 저기 잔뜩 앉아있는 記者님들의 記事거리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워별반 대수로운 것도 못되는데 왜 그렇게 일을 올려야 되겠는가 하고 會議를 왜 이렇게 非生産的으로 하는가 아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建設的인 會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왜 지금이 결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質問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贊成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仁坤委員 당초의 幹事會議에서는 野3黨에서 한 분석 얘기를 하고 民正黨에서는 수가 많으니까 한 이삼인 얘기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會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의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同僚委員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중에는 너무도 관련이 안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의 생각은 金大中씨 證言과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을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光州事態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金大中씨가 나와서 證言을 해야만이 문제의 핵심이 풀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해 가면서까지 個人的인 일인지 國家的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外國에 출장간다면 그것은 全國民의 지탄을 받아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이고 冒頭에도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그 분한테서 자기가 그날 나올 수 없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어떠한 理由書가 나온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아까번에 李海瓚委員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기 民正黨側에서 朴委員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事案을 보실 때 그 분이 나오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그 당시의 사정을 소상하게 밝혀 줌으로 인해서 全國民의 의혹도 풀리고 이해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人은 李海瓚委員의 動議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느 委員의 말씀중에서 아직도 光州에서 회생당한 그 억

올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暴徒라고 운운 하시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政府에서 第5共和國에서 光州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光州民主化運動이라고 지금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도 光州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暴徒 운운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다 좀 착각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 도중에 잘못 나와서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신다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動議에 贊同하는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炳勇委員 말씀하십시오.

○李炳勇委員 서는 어제 저녁에 비행기로 도착했기 때문에 이른바 「제트렉」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서 여러가지로 피곤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委員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령 外國의 경우에 그 最高責任者인 大統領이 獨裁者로서 또는 終身執權한다든지 長期執權하는 경우에는 革命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處罰하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憲政의 歷史를 안 밝히려는 것이 우리 民族의 염원이고 또 그러한 뜻에서 崔圭夏 大統領이나 全斗煥 大統領이나 비난받을 점이 있고 없고간에 다시는 그러한 非憲法的인 또는 國民한테 밀려나는 또는 軍部가 일어나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안 밝자고 하는 것이 아마 4千萬 國民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外國의 경우에 가령 在任중에 어떠한 非違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깨끗이 물러 가면 덮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崔圭夏 大統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動議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큰 被疑者와 같이 보는 것같은 말로는 禮遇한다고 하면서 被疑者로 몰아치는 「코너」에 몰아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特委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자 하는 事實關係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野團의 어느 분 말씀이 현재 여섯사람이 合意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고 앞으로 與野合意에 의해서 幹事들 合意에 의해서 몇십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난 뒤에 그래도 最高責任者인 그 분의 말을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가서 묻는다면 그것은 國民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바로 처음서부터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人採擇問題 가지고 아마도 與野 幹事會議가 심의철을 끝냈다고 그래요. 상당히 끝났다고 그러합니다.

물론 野側에서는 그분이 나와야 真相糾明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與側에서는 실지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 갖고 事實糾明이 된다면 굳이 前大統領까지 證言臺로 안 불러도 되지 않느냐 만일 조사한 결과로도 그분이 안나와 갖고는 真相糾明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논의하자 이 차이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國家元首를 國會의 特委에서 證人으로서 부를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證言을 다 들어보고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한테 大統領께서 在任중에는 어땀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순서올시다.

처음부터 事實糾明보다도 당신은 이랬소 저랬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事實糾明의 순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前大統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外國의 예에서도 본다면 그러한 경우에 꼭 國會에 나와서 말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가서 그 분이 내가 그동안 겪은 것으로서는 이렇다 하고 그분이 記者會見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聲明書를 낸다든가 또는 立法院에다가 書面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特委에서 막 시작한 이 단계예요. 시작한 이 단계인데 그분이 이려고 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事實이 糾明되어 갈 때에 아마 그분이 그런 意思決定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아마 國民들도 바랄 줄 압

니다.

그래서 우리가 外國에서의 憲政의 예를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特委의 시작서부터 그분을 꼭 지적하고 가는 것은 그것은 立法府가 行政府 首長을 지낸 사람에 대한 三權分立의 精神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外國의 예에 비추어본다 하더라도 한 번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 우리는 40年の 憲政史에서 지금까지 너무 與가 多數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野는 그지…… 이것은 이 13代 國會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13代國會를 이와 같이 구성시킨 것은 國民의 높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票가 많으니깐 그냥 可決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國民의 우리 13代國會의 비묘한 議會分布를 갖게 한 基本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세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끈다……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오늘 實質的인 證言을 듣는 것이 아니올시다. 運營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前大統領을 처음서부터 證人으로 채택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3代國會가 구성된 이 마당에서 與小野大는 多數가 그냥 밀어붙여도 좋다…… 그것을 國民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多數와 少數가 오순도순 양보하고 서로 권고하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與黨은 數가 적으니까 틀리면 그만두자 이렇게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한 번 호소해 보고 多數를 쥐고 있는 野圈한테 한 번 양해를 구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야하! 너희가 少數가 되니까 태도가 그렇구나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會議하는 것을 가만히 보았어요. 與黨에서 말할 때는 野黨에서 자주 중간에서 뛰쳐 나와서 말합니다. 野黨에서 말할 때는 與黨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

니다.

그러니까 少數인 너희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오늘 多數可決할 거야 해 버린다면 우리가 같이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래 갖고 무슨 國民代辯機關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國民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또 野黨에서 요구하는 이 證人을 與黨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분이 해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해명을 안하신다면 그때 가서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수도 하기 전부터 그 양반을 證人으로 採擇부터 하자 하는 것은 外國의 先例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13代國會는 與小野大로 4黨이 서로 마음대로 못하게 얽어놓은 그 國民의 높은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40年동안에 多數면 밀어붙이고 少數면 멍장놓고 이것을 國民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한 國會像을 이제 40年の 歷史에서 새 출발하는 마당에 오늘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40年前의 憲政의 歷史로 되돌아가는 나쁜 歷史가 출발되는 것 같아서 오늘 기어이 표결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趙洪奎委員 말씀하세요.

○趙洪奎委員 우리 委員會 이름이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980年5月18日부터 光州에서 있었던 民主化運動에 대한 真相調查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980年5月18일부터 있었던 光州民主化運動의 시발이 된 계기가 된 원인이 된 그 전날 1980年5月17日 밤 자정을 기한 全國非常戒嚴令擴大措置가 원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5月18日 문제니까 5月17日 즉 순서대로 하자면 全國非常戒嚴令擴大措置를 취한 당사자부터 證言을 듣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黨幹事들의 합의에 따라주는 의미에서 다른 문제부터 아까 民正黨側 幹事が 말한 대

로 순서대로 하자면 5·18의 시발이 된 5월 17日 소위 그 事件에 관련된 證言부터 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4黨幹事가 합의한 대로 우리가 모두 따라주고 있습니다.

나만 이 崔奎夏證人에 대한 문제만을 幹事間에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가지 각도에서 討論했음에도 불구하고 幹事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會議進行을 빨리하고 우리 委員會의 활동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幹事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議題로 까지 사실 합의만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長時間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입장은 幹事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에서 幹事들도 충분히 發言하였고 與野가 충분한 意見開陳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贊反討論을 反對하는 우리 委員님들이 論理의 開陳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論理의 開陳도 없으시고 이미 論理를 開陳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贊反討論을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委員長에게 요청하고 動議합니다.

○金吉弘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이것은 民主主義 원칙대로 動議가 나왔으니깐 再請하고 그 다음에 異議를 提示하세요.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오」하는 이 있음)

이제 異議를 말씀하세요.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金吉弘委員 國會法 第56條에 보면 委員은 委員會에서 同一議題에 대하여 회수 및 時間制限없이 發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님이 一方的으로 討論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反對하는 의견이 있으면 反對發言을 주셔야지요. 어떻게 國會法에 규정된 대로 會議를 運營하셔야지 一方的으로 討論終結하는 法이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異議를 말씀하세요.

여기 動議가 나오니까 委員長은 動議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動議가 나왔거든요.

○金吉弘委員 委員長으로서 공정하게 사회하십시오.

○委員長 文東煥 공정하십시오. 議會法이예요.

動議가 나오면 내가 그것을 해야지 안하면.....

○李海瓚委員 動議案이 나왔으면 再請與否를 묻는 것이 무엇이 不公正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基本的인 常識도 모릅니까?

○委員長 文東煥 法的으로 말씀해 주세요.

○金吉弘委員 제가 動議가 성립되기 전에 議事進行發言을 달라고 한 것은 國會法에 동일한 議題에 대해서 委員은 무제한 發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民正黨委員들이 反對討論할 의사가 있는데 왜 一方的으로 합니까?

○委員長 文東煥 法的으로 說明해 드릴게요.

法이 動議案이 나오면 委員長은 動議를 받아 再請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예요.

再請이 없다면 그것은 쓸데 없어요.

再請이 나오면 그 다음에 異議를 提起해요.

○金吉弘委員 動議가 成立되기 전에 내가 議事進行發言을 신청한 겁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것보세요. 動議가 나오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겁니다. 法이 그렇습니다. 法은 法대로 알고 해야지.....

○李敏燮委員 議事進行發言하겠읍니다.

贊反討論이 우리가 할만큼 많이 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것이 事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무제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討論하는 것이 우리의 政治道義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政治라는 것이 막히는 듯하다가도 또 트여지는 것이 政治고 곧 허물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굽이쳐서 다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政治고 그래서 政治는 어떻게 보면 綜合藝術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13代 國會에 들어와서 國民的인 막중한 여망을 안고 출발하는 이 國會가 좀 여유있게 또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자세로 운영되기를 저는 바라 마지 않습니다.

물론 與小野大다 해서 이제 表決이라든가 이런데 野黨의 3黨이 힘을 합하면 與黨을 表決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전에 끝난 12代 國會를 우리가 상기해 볼 때 비록 많은 힘을 가진

與黨이라도 수가 적은 野黨을 너무 우리가 物理的으로 대할 때는 그 뒤에 많은 경직과 政治의 참 경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잊고 일같이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이 장시간 討論을 하고 또 우리가 歷史의 證言臺에서 우리의 처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時點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참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이렇게 복선에 두고 정말 南北關係에서 學生會談이라는 國會會談 여리가 지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안고 이제 목전에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盧泰愚 大統領과 또 4黨의 總裁들께서도 정말 오순도순 다정하게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올림픽」을 앞둔 모든 政局을 정말로 참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서 정말로 평화롭고 成功的인 「올림픽」을 치루자고 院內들은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時點에서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 너무나 오늘 前職 國家元首에 대한 證人 出席表決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사실 평소에 가깝고 존경하는 趙奎奉委員께서 質疑終結을 提議를 하셨지만 참으로 그것은 유감입니다.

우리가 質疑를 해도 議事進行을 그렇게 방해하면서 할 의도는 추호도 없고 또 우리로서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잘 조화롭게 화합의 政治를 이룩하는 의미에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會議를 열고 열 수 있는 定足數가 되고 3黨이 또 모든 것을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아무때고 可決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野黨과 같이 여기서 힘으로 농성을 하고 단상의 지휘봉을 참 뺏고 이러한 議事進行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때 저희가 어떠한 法的으로 이 문제를 참 속단할

것이 아니라 前職 國家元首에 대한 하나의 禮遇다 하는 측면에서도 또 모든 일을 가파르게 급속히 결정하는 그런 출속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원고 하니 院內들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참 분위기 좋게 모든 얘기가 모아지고 또 저희가 院內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院內總務가 그동안 우리 黨에는 外國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歸國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總務間에도 서로가 협의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를 저희가 좀 더 참 저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전달을 해보고 그래서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레고 글피고 아무때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表決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올림픽」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各黨 首腦들의 움직임 또는 우리가 원만히 해결해야 될 院內 사령탑들의 좀 더 마지막 우리가 절충 이런 문제를 적용해서 우리가 表決만은 이러한 마지막 행사만은 하루 이틀 뒤로 머우고 우리가 저쪽의 의사도 전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때고 오늘 이렇게 꼭 서두르지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추호도 조금도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잠시 아직 시간이 해가 안넘어가고 있습니다. 4黨幹事들이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議事進行을 방해하거나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黨幹事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판인데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委員長 文東煥 改議입니까?

○李敏燮委員 예. 改議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改議지요?

그러면 幹事會談을 다시 해서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改議가 있는데……

○李敏燮委員 動議입니다. 動議……

○委員長 文東煥 아니 討論終結이지요?

거기에 대한 動議 再請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討論終結을 끝마치고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李敏燮委員 예. 좋아요. 討論終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討論終結은 끝마치고 이것을 動議로 하면 되겠지요.

○李敏燮委員 討論終結은 우리가 그렇다고 절대로……

이 상태로 놓아두고……

○委員長 文東煥 아니 그런데요 討論의 原則을 피하면서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討論終結에 動議 再請이 나왔어요.

異議가 있느냐 물었는데 異議가 있어서 나왔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렇다면 表決하는 수 밖에 없지요.

○李敏燮委員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씩 여유를 가집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것 보세요. 내가 잠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데 討論終結動議 再請이 나왔습니다.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討論終結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動議하시면 되지 않아요? 또 다시 動議를 하세요.

○李道先委員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께서 다른 會議는 많이 해 보셨지만 國會 會議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데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사실상 本會議에서는 討論終結이 나오면 그것은 討論없이 바로 表決을 하는 것입니다. 國會法上에……

그래서 바로 表決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改議나 異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國會法에서는 委員會의 發言은 同一議題에 관해서 한 委員이 여러 차례 發言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與野 협의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國會法의 立法精神으로 본다면 常任委員會에서는 쌍방간에 討論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 一方的으로 討論終結 動議가 나오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지요. 아마 이번 國會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과거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주로 숫가 많은 與黨이 討論終結을 기습적으로 하고 表決을 해 버리는 그런 데에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不條理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國會法을 立法하는 과정에서 與野代表들이 委員會에서는 同一議題에 관해서 回数에 제한 없이 發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條項을 삽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委員會에 관해서도 특별히 명시된 法條項이 없을 때는 本會議의 基準을 援用한다는 條項이 있습니다. 그래서 1次的으로 討論終結動議가 나오면 그것은 討論이 있을 수 없고 바로 表決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李敏燮 우리黨所屬 幹事께서 그래도 與野委員이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마지막 그러한 表決處理에 들어가기 전에 쌍방 幹事들이 한번 더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했는데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討論終結에 관한 表決을 하고 또 動議案에 관한 表決을 하고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交涉團體 幹事님들과 委員長께서 討論終結에 관한 表決하기 직전에 한번 만나셔서 마지막 최선을 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것은 끝났어요. 討論終結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停會하고……

○李道先委員 아닙니다 討論終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表決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文東煥 내가 다시 새삼스럽게 異議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없으니까 終結을 宣言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출발되어야 될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建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敏燮委員 지금 말이지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는 순간입니다.

이 지엽적인 討論終結의 의미가 문제가 아

니고 그것을 설사 委員長님이 미숙해서 어떻게 방망이를 쳤다 하시더라도 지금 李道先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討論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된 것입니다 終結이 이루어지려면 表決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停會를 잠시 해서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討論終結 表決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을 進行시키면 됩니다.

○趙洪奎委員 討論終結은 그 문제에 대해서 異議가 없었기 때문에 停會하자는 提議만……

○委員長 文東煥 發言權 얻고 얘기를 하세요. 辛基夏委員 말씀하세요

○辛基夏委員 議事進行이 아주 난잡하게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議事進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체 發言을 삼가했습니다마는 討論終結動議案이 나오고 그 處理過程에서 與野委員들 사이에 異論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發言權을 얻어서 發言을 하게 된 것입니다.

趙洪奎委員께서 討論終結 動議를 내셨고 다른 同僚委員들이 再請, 三請을 하셔서 委員長께서는 討論終結 動議案이 成立되었음을 宣布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宣布하신 다음에 바로 이에대한 表決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李敏燮委員께서 議事進行 發言申請을 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委員長께서는 趙洪奎委員의 動議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니까 했을 때 어느 委員도 異議를 提起하신 바 없기 때문에 委員長께서는 討論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하시고 議事棒을 세번 두드리신 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委員會의 速記錄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려니와 錄音도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討論은 이미 終結된 바 있고 이제 崔圭夏씨를 證人으로 채택한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여부에 관한 것만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李敏燮委員께서 충분한 與野幹事間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停會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提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討論終結 여부의 문제는 이미 버스 떠난후에 손드는 격이 된 것이어서 이미 끝나버린 것이고 이제는 바로 崔圭夏씨를 證人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는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또 표결에 의해서 채택할 것이냐 與否에 관해서 與野間에 충분한 이해속에 채택하기 위해서는 幹事間의 合意를 위해서 잠깐 停會를 하자 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委員長께서 여러 委員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말이 같은 黨 所屬委員들 간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議事進行發言申請이 수없이 나오는데 여러 委員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일체의 發言權을 주셨는데 제가 委員長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議事進行發言申請을 하신 委員들의 發言內容이 오히려 우리 委員會의 議事進行을 조금 저해시키는 결과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얘기 드립니다.

더우기 民正黨에서 오늘 우리 特別委員會의 開議前에 2時 開議豫定인 것을 4時로 開議하면서 2時間 동안이나 충분히 意見調整過程을 거치셨고 또한 意見調整의 결과를 李敏燮委員님을 비롯해서 각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도로하셔서 12명의 民正黨 委員중 9명이 우리 李海瓊委員의 動議에 대해서 反對하는 討論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反對討論의 핵심적인 내용도 다 보며는 또 마찬가지로 보는 視角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에 대한 것이 어떠한 충분한 學術的인 理論에 관한 것도 아니고 民生問題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시간을 너무 끌지 않나 하는 감이 들고 이러한 광경을 國民들이 직접 지켜본다고 한다면 國民들에게 우리가 무슨 낱을 들고 國民의 代表者임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與野間에 충분한 意見開陳이 있었고 충분한 토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表決節次만이 있을 뿐인데 民正黨側의 幹事이신 李敏燮委員님의 간곡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약 5分정도 停會를 해서 4黨 幹事間에 最終的인 調整節次를 한번 거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敏燮委員 역시 野黨의 首席副總務이시기 때문에 해박한 우리 國會法知識과 議事進行

經綸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助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委員長께서 動議를 成立시키는 것을 물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動議를 成立시켰읍니다.

그 다음에 表決宣布가 있어야 합니다. 表決을 宣布하겠읍니다 하는 宣布가 있고 宣布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慣例上 起立表決을 하든가 舉手表決을 하든가 하는 節次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또 委員長님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節次가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速記錄을 보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지금 辛基夏委員長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쪽으로 잠시 停會하는데 時間을 유감스럽게 5분으로 제한 한것은..... 지금 아수 중대한 고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議事進行發言할 意思는 추호도 없으니까..... 아직 그렇게 시정하시지 않을텐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타협을 위해서 10분동안 停會를 하겠읍니다.

(19時40分 會議中止)

(20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아까 動議案이 決定되었고 그리고 討議가 終結되었기에 이것은 表決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李敏燮委員 委員長님 表決直前에 議事進行發言해야 되겠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李敏燮委員 民正黨 李敏燮委員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歷史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러한 局面에서 國民의 輿望을 안고 중요한 會議를 長時間 했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討論을 통해서 雙方의 의견을 충분히 開陳했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가 우리의 當爲性을 주장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政治를 해감에 있어서 정말로 國民의 意思가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보고 거기에 충실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政治人的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歷史的인 「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또 自由化와 民主化의 흐름과 아울러서 統一의 시대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國民의 화합과 화해가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特委活動에 證人採擇問題를 놓고 이같이 가파르게 맞서서 끝내는 表決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을 대하게 된 것을 정말 깊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光州真相調査를 들어감에 있어서 順序가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을 떠나서 정말로 올바른 歷史的 證人이 되기위한 그러한 責務를 다 하는 데에서 오늘 3野黨이 議席이 우리 與黨보다 다소 많다는 것을 하나의 根據로 해서 이제 前職 國家元首의 證人採擇을 위한 表決을 위한 이런 상황을 맞게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光州事態真相調査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명되어야 될 國家元首責任問題부터 먼저 거론해서 끝내 우리의 마지막 절충안 조차 거부한채 총총히 이러한 表決을 강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리 議政史에 어떠한 記錄으로 남을 것 인지 歷史가 분명히 證據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歷史的인 證言에 있어서 분명히 外遊가 예정되어 있는 金大中總裁의 證言을 포함한 첫날 證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대로 놓은 채 그 證言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우리가 두어야될 證言에 우선 條件附 採擇만을 이 자리에서 表決로 강행하려는 野黨의 그 조급함에 대해서 그 여유없는 자세와 또 어느 면에서는 獨善的인 자세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忠告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事態는 결국 우리 政局의 硬塞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國民과 光州市民의 여망에 부응해야 될 光州真相調査를 추적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질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法에도 눈물이 있고 政治에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의 人權과 불쌍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어야 되는 그러한 包括的인 책임을 가진 우리 政治人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與黨의 마지막 절충안조차 거부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개탄을 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黨은 분명히 野黨 여러분들이 過半數 議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무때라도 차질없이 證人出席要求案을 表決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過去 野黨의 例와 같이 議事進行 妨害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않고 어느 때라도 성당히 表決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願하는 바를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끝내 참지 못하고 이러한 表決을 強行하려는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자신의 앞으로 崔圭夏 前大統領을 만나서 이러한 우리의 진지하고 또한 성의있는 意思表示를 하고 그 분의 얘기를 듣고서 이것을 처리해도 그 분을 證人으로 내세우는 시기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崔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당장 결정한다 해도 19日에나 證言이 가능하고 그 뒤에 결정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證言出席이 우리가 前提되는 입장에서 이 분이 하루 며칠만 우리가 表決을 留保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與野가 和合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方案을 세시했음에도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金大中總裁는 분명히 證言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도 했지만 또 이제 狀況에 따라서 本人의 證言은 언제든지 연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立場으로 外遊計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崔圭夏 前大統領만이 그것도 날짜도 박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건부로 出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것을 성급하게 과연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볼때 정말로 우리는 政治를 하는 같은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이 表決事態가 政局과 우리 光州事態真相을 추석 조사해 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과문이 올지 豫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같이 성급하게 졸속하게 表決에 부쳐서 強行하는 것과 또 그 동안에 우리 정말로 원만한 常任委員會運營에 상당한 問題點을 남기신 文東煥委員長님의 이러한 委員會運營方法과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히 是正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民主正義黨所屬 光州特委委員들은 이러한 졸속하게 강행되는 성급한 證人의 採擇表決에 있어서 단호하고도 강력한 反對의 意思表明으로서 이 자리에서 表決에 같이 앉아서 參席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議事進行發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은 表決을 進行하겠습니까.

表決內容은 이렇습니다.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하여 證言에 필요한 시기에 當 委員會에 出席시키되 出席日時決定은 委員長에게 委任하자는 動議입니다.

○李海瓚委員 처음에 本委員이 動議案을 낼적에 崔圭夏씨의 證人選定을 表決에 부칠 것인데 제가 動議를 했습니다.

그 시기와 날짜에 관해서는 動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처음엔 證人選定에 관한 動議案을 表決에 붙여 주시고 出席時期와 날짜 그것을 委員長한테 委任을 하는 案은 별도의 動議案으로 處理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討議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에 이렇게 整理했는데 그러면 그냥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하는 문제에 대해서 議決하겠습니다.

○吳景義委員 時期와 날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委員長 文東煥 다시한번 재차로 한다는 것입니다.

○崔正植委員 우리가 과거 與黨한테 數에 의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자리에서 表決하는 것보다도 지금 表決하나 내일 아침 表決하나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與黨사람들이 이 表決에 參席할 수 있게끔 촉구하고 시간을

다만 몇시간이라도 기다려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모양을 갖추는 일이고 과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했지만 우리는 정말 民主主義 大道를 가는 野黨이라는 사세를 보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서 委員長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 점에 관해서는 꼭같은 심정입니다. 옛날에 與黨이 횡포하던 것처럼 野黨이 與를 향해서 數의 횡포를 한다는發言을 하셨는데 글썽! 그런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幹事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자세를 委員長으로 보았을 때에 數가 많은 野黨이 정말 참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野黨幹事들이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다고 決議에서 動議案이 採擇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與黨에서는 最後發言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올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議事進行上에 있어서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表決은 하는데 願치 않으시면 否決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申河澈委員 事案이 좀 다른 것입니다. 지금 委員長께서는 表決들어가기 전에 날짜 決定은 委員長님에게……

○委員長 文東煥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지금 表決은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른 案件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申河澈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른 의문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表決하겠습니다.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하는데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십시오.

(起立表決)

全員 起立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崔圭夏 前大統領이 證人으로 되는 것의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委員 15名중 贊成 15名 反對는 없었으므로 이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崔圭夏 前大

統領을 證人으로 採擇하여 出席하기로 한 것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崔鳳九委員 崔鳳九委員입니다.

조금전에 崔圭夏 前大統領을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의 證人으로 出席한다는 것을 可決했습니다. 했는데 5·18光州民主化運動의 올바른 真相調査로 光州市民의 名譽를 회복하고 被害者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補償을 해줌으로써 國民大和合과 이 땅에 두 번 다시 폭력에 의한 反民主的인 獨裁政治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함은 물론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하여 事必歸正이기 때문에 歷史의 준엄한 審判을 온 國民의 이름으로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崔圭夏씨의 證人出席이 이미 表決됐으니 本委員會는 신속하고도 能率的 運營을 위하여 崔圭夏씨의 證人出席要求는 本委員會의 運營事項을 참작하여 委員長께서 적절한 때에 出席要求書를 보낼 수 있도록 委員長에게 委任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動議가 있습니다.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金仁坤委員 지금 動議에 時期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時期와 方法까지를 委員長한테 一任하는 것으로 修正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修正動議 받아주시지요?

○崔鳳九委員 예.

○委員長 文東煥 時期와 方法을 委員長에게 一任한다는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다른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出席시키는 時期와 方法을 委員長에게 委任하자는 動議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두 鄭委員이 國會 特別委員會를 辭退하시면서 辭退 身上發言을 하시겠습니다.

鄭祥容委員부터 말씀해 주세요.

○鄭祥容委員 늦게까지 수고 하시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光州真相調査委員會를 辭退하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資格是非에 대해서 먼저 是非를

걸어온 民正黨委員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國政을 論함에 있어 個人的인 名譽와 政黨間의 政治的 利害關係보다 國民의 正當한 要求가 最優先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7月25日 第2次 全體會議에서 밝힌 特委會 임하는 本委員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韓國 現代史에 있어 결코 반복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었고 동시에 愛國市民의 뜨거운 民主化 열기가 10餘日동안 天地를 진동케 했던 光州에서 戒嚴軍에 의해 道廳이 신압되는 마지막날까지 처절하게 함께 싸웠다 本委員은 光州市民의 간절한 民主化意志와 통한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光州市民이 本委員 등을 第13代 國會에 진출시켜 당시의 真相을 糾明하고 窮極的으로 光州市民 名譽를 回復시켜 달라는 간절한 歷史的 召命意識을 부여받는데 힘입어 光州特委會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光州特委會에 참여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으나 歷史의 신성한 審判者요 國民의 신성한 代辯者로서 客觀的이고 嚴正中立해야 할 國政調查活動이 자칫 個人的인 감정과 편향에 기울지 않도록 인내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리하여 本委員은 모든 감정의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特委會에 참여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곧 全國民과 歷史앞에 던진 다짐이요 正義와 良心에 따라 眞實을 糾明하겠다는 望月洞 英靈께 바치는 살아 남은자의 참담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與黨側에서는 이날부터 本委員의 特委會 資格與否를 문제삼더니 지난 3日 4黨幹事會議와 記者會見을 통해 다시 資格是非를 들고 나와 本格的인 活動이 마치 鄭 雄委員과 本委員 두 사람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示唆했습니다. 이러한 民正黨의 태도는 政治道義上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불행한 民族史의 비극이 再發되지 않도록 委員 各自가 民族良心을 回復하여 積極的으로 임해야 한다는 자세를 根本的으로 의심케 했습니다.

特委會 資格是非의 根據로서 與黨에서 제시하고 있는 國政監査法 第13條 1項의 規定에 대해 28名의 委員으로 特委會 初任 구성될 당시는 물론 委員長 및 幹事選出過定까지

일체의 인금이 없었고 더우기 開院國會에서 國民과 憲法앞에 公人의 任務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宣誓까지 하였던 本委員을 光州特委會가 활동을 개시하려는 시점에서 再論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에 의해 비록 1次 拒否된 法案이지만 與野 合意精神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난 5日 公布된 國政監査法의 委員資格規定에 本委員이 저촉되고 光州特委會 자체의 正常的인 운영에 장애가 된다면 모든 희생과 각고의 고통을 감수하고 特委會委員에서 辭退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동시에 特委會委員으로서 마지막 자리만큼 光州特委會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光州虐殺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히는 特委會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光州事態는 결코 雙方過失이 아니다. 억울하고 기막힌 被害者가 엄존한 현실에 비추어 8年동안 加害者가 없는 未齊事件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責任所在의 糾明은 바로 10·26이후 일화와 같은 全國民의 民主化 요구를 지연시키고 기만한 前崔圭夏政權과 12·12政變 5·17措置로 실세를 장악한 全斗煥 前大統領등 일부 少數 政治軍人들의 사전 執權計劃에 따른 虐殺鎮壓作戰의 숨겨진 제반 과정을 國民앞에 公開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國民들은 戒嚴司의 발표나 吳滋福 國防長官의 複寫板 答辯을 願치 않는다. 최근 밝혀진 소위 戒嚴軍의 作戰日誌에 애매하게 표현된 非公式 指揮體系의 실세 즉 軍司令官 作戰指導者 등으로 표현된 일부 少數 政治軍人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시 光州에 投入된 空輸部隊등 戒嚴軍은 정당한 이유없이 強硬 討伐作戰을 감행하여 光州市民은 물론 全國民은 그들을 敵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제5·6共和國 權力的 核心部를 차지한 당시 指揮責任者들은 全軍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지난 8年間 신성한 國民의 軍隊를 國民과의 對峙勢力으로 誤認케 한 張本人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虐殺責任所在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한 진정한 國民和合과 社會正義實現은 欺瞞의 口호에 불과하며 政權의 正統性 자체는 취약한 수밖에 없습니다. 光州特委會는 少數 政治軍人들의 反國家的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所任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前職大統領은 證人選定에 있어 聖域이 될수 없습니다.

國民의 疑惑과 不信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責任所在가 분명한 關係者의 證言은 國民에 대한 義務事項입니다. 前職 國家元首에 대한 禮遇와 존경은 國民의 自發的인 심정의 발로를 토대로 한 것이며 그것은 在任期間의 政治的 功過에 대한 國民的 評價와 審判過程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法으로 強制한 예우와 존경은 權威主義的 발상에 불과합니다.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前職 國家元首에 대해 證言要求를 했을 때는 지체없이 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國民과 歷史앞에 떳떳한 指導者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光州特委가 지난 大統領選舉에서 與野 候補를 막은 國民과의 合意事項이요 약속이었던 만큼 聖域없는 調查活動力을 拒否할 아무런 名分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最高決定權者였던 崔圭夏 前大統領과 全斗煥 당시 保安司令官 등이 證言臺에 서지 않으면 歷史的 審判을 받게 된다는 警告를 國民의 이름으로 보내는 바입니다.

셋째 光州特委는 당시 美國의 役割을 반드시 糾明해야 합니다.

최근 發表된 光州鎮壓戒嚴軍 作戰日誌는 特戰司 20司 31司 戰鬪教育司令部的 1日鎮壓活動力은 물론 美國介入의 確證을 미흡하나마 記錄하고 있습니다. 美國은 20司團 軍移動承認 및 最終鎮壓作戰 충정작전의 實施與否와 作戰開始時間選定에 있어 韓·美間 協議事項으로 明示하고 있습니다.

지난 85年 「클라이스틴」 당시 駐韓美國大使가 밝힌 사실이 다시한번 追認된 셈입니다. 美國政府가 韓國軍 高位幹部와의 協議事實과 報告받은 내용을 光州特委에서 숨김없이 公開하지 않는다면 美國의 實體는 韓半島에서 미지않아 孤立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光州虐殺 당시 그토록 友邦과 血盟의 관계로 알았던 美國이 결국 虐殺鎮壓作戰을 承認했고 이후 軍事政權에 支持와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韓國國民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 皮相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중

한 忠告입니다. 또한 權威主義的이며 高壓的인 對韓政策 및 外交姿勢의 是正을 요구하는 韓國國民의 목소리임을 直視해야 할 것입니다.

國家와 民族間의 互惠와 平等의 관계를 무시한 힘의 논리와 冷戰의 마귀가 위대한 民衆의 힘에 의해 사라지고 있음을 世界史의 새로운 大勢로 느끼고 있는 本委員은 美國이 과연 韓國의 民主化와 分斷克服 韓民族의 自主統一을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어떻게 관계를 再定立해야 할 것인지 本 光州特委와 관련하여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 밝힐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特委委員의 獻身的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네째 光州特委는 所屬政黨의 利害關係를 초월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真相調查作業을 進行시켜야 합니다. 與黨側은 그동안 委員資格是非 委員長辭退 證人選定 등의 枝葉的인 문제를 거론하여 特委自體의 本格稼動을 空轉시키려 했고 8月17일부터 底意를 알수 없는 「올림픽」 開催 1個月前 特委活動 中止提議의 特委不參宣言을 하는 등 遲延戰術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政府는 特委가 8月4日 요구한 資料提出을 8月16日 이후로 修正 延期함으로써 特委活動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特委遲延事態가 政府與黨의 相互默契에 의한 것이라면 全國民의 糾彈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光州特委를 挾雜의 자세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면 강력한 國民的 抵抗을 받아 政治는 場外로 뒤흔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같은 事態惡化에 대한 책임은 全的으로 政府與黨의 微温的이며 事態糊塗的인 자세에 기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痛感하고 다시한번 政府與黨의 積極的인 協調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本委員은 光州特委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物心兩面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本委員은 당시 行政府와 軍의 重要責任者가 證言臺에 서지 않을 경우 光州特委 自體의 存續理由가 國民的 指彈의 대상이 될 것이 明若觀火하므로 野黨委員과 在野民主勢力은 물론 모든 民主市民과 더불어 特委活動을 沮害 弱화시키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身命을 바쳐 가능한 모든 鬭爭을 전개할 것입니다. 本委員

이 비록 特委에서 빠지지만 光州抗爭의 眞相이 國民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규명되어 民主發展의 토대가 되는 날까지 證人으로 참여하여 진실을 만천하에 밝힐 것입니다.

여섯째 최근 「버마」抗爭을 보면서 本委員은 8年前 光州抗爭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임을 직시하여 「버마」國民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조속한 事態解決을 기원합니다. 朴正熙 軍事獨裁政權의 崩壞이후 國民의 民主化要求를 무작정 지연시켜 결국 총칼로 억압하고 光州市民을 학살한 悲劇의 歷史가 「버마」全國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그간 억눌려왔던 「아시아」民衆들의 民主化불결이며 이는 지역할 수 없는 自由化時代의 요구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마」國民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民主化의 礎石이 되어줄 것을 懇求하는 本委員은 光州特委 委員을 辭退하는 오늘 이 땅에서 더욱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本委員이 光州特委 委員에서 辭退함으로써 신망과 분노를 함께 느낄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一聯의 事態展開가 光州特委活動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며 望月洞 英靈들과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光州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眞相과 責任所在가 밝혀지고 이 땅에 正義가 이룩될 때까지 진정한 民主化와 自主化가 이룩될 때까지 光州는 계속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鄭 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崔正植委員 委員長님! 지금 鄭 雄委員이 辭退理由書를 만천하에 公開하려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遲延되었으니 會議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散會합시다.

○委員長 文東煥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하자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鄭 雄委員!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鄭 雄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經過했는데 저는 平民黨의 鄭 雄입니다.

저희들은 事件利害當事者 또는 關聯者로 인해서 民正黨으로부터 委員이 될 수 없다고 是非가 왔고 다음에 2次에 걸쳐서 促求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우리 特別委員會가 運營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發生되거나 또

는 眞相糾明에 있어서 영향이나 장애가 있다면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黨에서 이미 熟議해 가지고 黨論으로 저희들이 特別委員會를 辭退하도록 이렇게 직접 決定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順從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特別委員會 委員職을 물러남에 있어서 침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애석하기 금할 길이 없습니다. 本委員은 그간 여리가 지 주변에서 聲援해 주신 支持해 주신 온 國民과 光州市民에게도 자신들께서 대단히 서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本委員이 個人的 意思에 의해가지고 決定한 것이 아니고 黨論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러나게 된대 대해서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委員職을 물러나게 되면서 꼭 세 가지 事項만 要望하고 말씀을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光州民衆抗爭의 眞相은 國家의 安危를 위해 공정하게 그리고 빨리 糾明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努力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이 調査는 枝葉的인 것보다 本質的인 것에 重點을 두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光州民衆抗爭은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일어났으며 누가 일으켰으며 누가 왜 空輸部隊를 戒嚴軍으로 指定했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자물쇠를 푸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째로는 오늘 數分前에 저희는 당연히 崔圭夏 前大統領이 證人으로서 選定됨으로써 당시의 國政責任者로서 이 나라에 올바른 正史를 남기기 위해 진실된 證言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慶賀해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國民은 이 光州特別委員會에 關心을 集中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물러나고 또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崔圭夏 前大統領이 證人으로 出席하게 됨으로써 이 特別委員會는 이제 순조롭게 아주 그 활동이 大的으로 展開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委員께서는 수고 많고 하여 주시고 그리고 5.18을 통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우리 國民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結論이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영광되게 뱃어질 수 있기를 특별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자리를 물러나면서 인사말씀 드리고 떠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景義委員 우리 本 委員會에서 決議를 해야 될 事項이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結果報告에도 말씀드렸듯이 政府側에다가 資料要請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不誠實하고 해서 우리가 促求決議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正式으로 動議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資料를 本 委員會에서 요구하는 것은 政府側에서 성실히 資料를 만들어서 提出해 주실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에. 動議가 있습니다.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모든 資料를 성실히 신속하게 提出해 달라고 하는 動議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른 案件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特委가 어떤 한 分水嶺에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國民을 위한 政治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재삼 느낍니다. 이렇게 거의 半이 되는 委員들이 退場한 가운데서 이 會議을 진행하는 제 마음이 착잡하지만 여러분도 같았을 줄 압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서로 自省하시면서 이 政治가 정말 國民을 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뭇든 오늘 決議된 崔圭夏 前大統領 證人採擇은 이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執行할텐데 우리 모두가 거듭 얘기했듯이 前大統領이시기에 그냥 出席을 요청하는 종이 한 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幹事들이 의논해서 찾아가서 趣旨를 말하고 이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런 절차를 執行하려고 그러합니다.

이상으로써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12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金吉弘	羅昌柱
朴煥太	辛卿植	李光魯
李肯珪	李道先	李敏燮
李炳勇	鄭東星	鄭東鎬
趙榮藏	辛基夏	李海瓚
鄭祥容	鄭雄	趙洪奎
崔鳳九	金正秀	朴泰權
申河澈	吳景義	崔正植
金文元	金仁坤	玉滿鎬
鄭夢準		

○委員아닌出席議員

金完泰	孫柱煥	鄭昌和
咸鍾漢	金令培	韓光玉
崔炯佑	劉基洙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立法審議官	吳聖均
-------	-----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富英	金文元	新民主共和黨

(8月3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淳昇	趙洪奎	平和民主黨

(8月11日字)